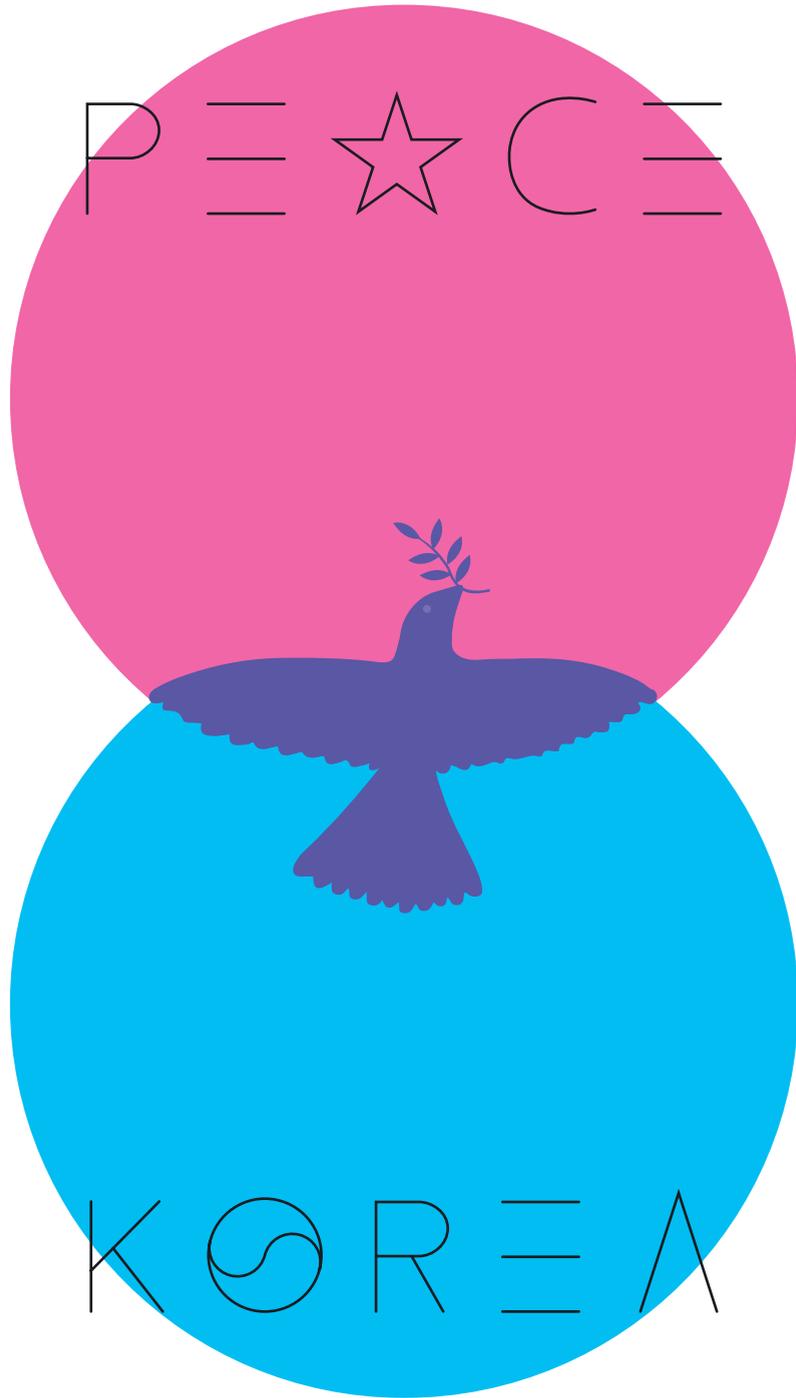




봄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트> 2017 (4350) 여름호 통권20호

#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7 060708 Vol. 20



S P E C I A L  
평 화 로 하 나 되 는 한 반 도  
평 화 로 하 나 되 는 온 세 상



**특집 인터뷰**  
한완상  
前 통일부총리

**특집 좌담**  
남북 학생 좌담

**특집 통일어벤저**  
화보 및 후기

**특집 글로벌 동문 메시지**  
백시현  
연변과기대 교수

**특집 명사 코멘트**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특집 리포트**  
아주통일연구소 소개  
연구소장 인터뷰

김동연  
前 아주대 총장  
경제부총리

남경필  
경기도지사

외 3인

**나의 여름 계획**  
목경훈  
미디어 12

정구윤  
경영 10

조민규  
프로젝트 지원팀 직원

최수영  
수학과 교수

호정화  
사회학과 교수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강신구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공소개**  
박재연  
국어국문학과 교수

**Location Premium**  
강소기업으로 가자  
<미원상사>

**내정신의 고향에서**  
이영조 동문  
충남도청 사무관

**News**  
연구뉴스  
뉴스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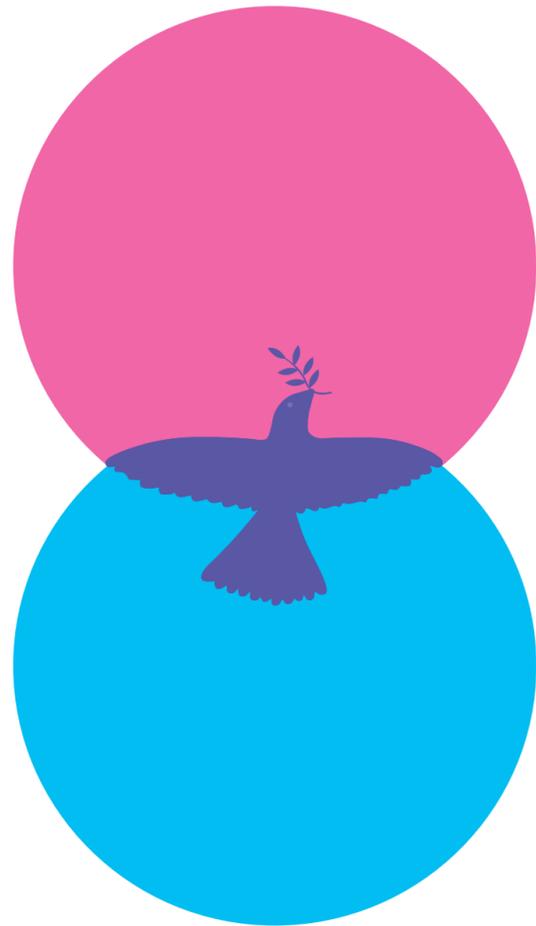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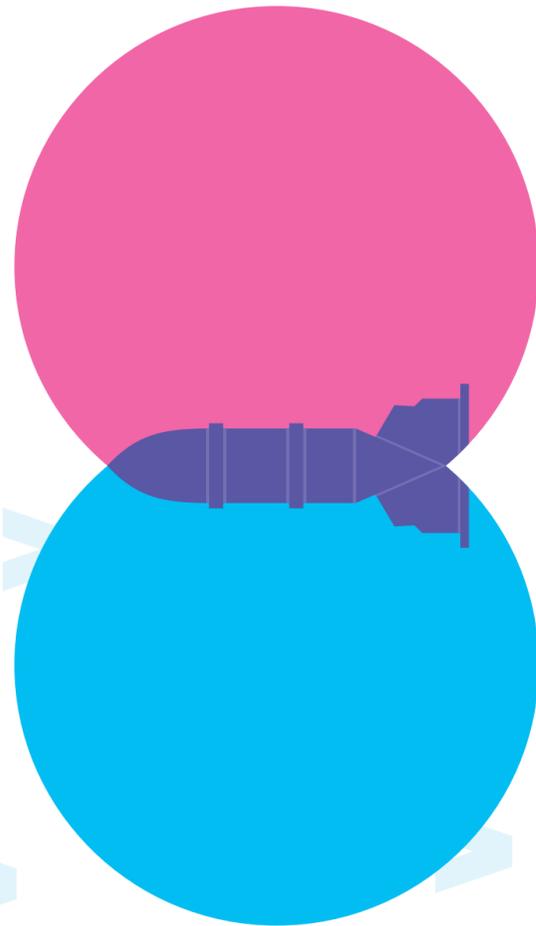
**특집 기고**

이성낙  
 명예교수

Joseph J. Ball  
 교수

김현경  
 MBC 논설위원

이한희  
 대학생겨레하나



**a word of editors**

**커피와 테이블이 만나면** "달은 강을 만나면, 시가 된다 / گل림은 떨림을 만나면, 사랑이 된다 / 새와 꿈이 만나면, 비행기가 된다 / 커피와 테이블이 만나면, 전쟁이 끝난다 / 이론과 현상이 만나면, 신도 놀란다 / 함께, 멀리 갑시다 / 세상을 키우는 또 하나의 힘, 상상-" 아주대학교의 '통일연구소' 등 '상생 프로그램' 소개 영상 문구이다. 전쟁 중에도 '만남'은 있다. 전쟁 중이야말로 '만남'이 절실한 것이고, 전쟁 직전의 '만남'이 가장 슬기로우며, 무조건적이어야 할 것이다. ● 우주 만물의 영남생멸(念念生滅)도 '만남'에 의한 것이다. 물질 A와 물질 B가 만나 물질 C가 되어 왔다.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과학이다. 문명도 마찬가지다. 자연과 인간이 만나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 빛이 낸 문화적 제 현상들이 있다. 그 상관관계를 들여다보고, 때로는 감성적,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힘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면 대학이란 만남의 학문적 공간이고, 만남의 실험적 공간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만남이 어려워졌다는 진단과 비명이 높아진다. 그럴수록 대학의 사명도 높아지는 셈이다. 자유와 창의 보장과 구현으로 '만남'의 제일 앞에 서야 할\*\*" 곳이다. ● 젊은이들의 만남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다. 목표를 미리 설정해 제시하고, 차등을 당연시하는 경쟁의 만남을 제외시키면 말이다. 이데올로기적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지닌 독일계 기업 BMW코리아의 도움 등으로 열다섯 젊은 아주인이 '2017 아주통

일탐사\*\*"의 주인공으로 기획된 것은 그래서 매우 뜻 깊은 바 있다. 실제로 북한 유학생 출신을 비롯한 연변대 동포학생들과의 만남, 식당과 호텔 등에서 우연히 조우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이들에게서 '순간'이어도 만남과 대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전문가들 보다 생생한 메시지\*\*"로 읽힌다. 촛불 정국을 떠올려 봐도 그렇지만, 사실 민주와 통일은 너무나 중요해 민주와 통일 전문가에게만 맡길 수 없다'할 정도였다. ● 아주대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지역통일 교육센터로 동시에 선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대학의 기본적 책무에 더해 <통일연구소>가 존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야 마땅한 이유다. 개교 시의 '선구자'가 북한과 통일에 각별한 관심과 실질적 행보를 가진 역사\*\*"도 갖고 있다. 더 많이 만나야 한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평화를 말해야 한다. 전쟁을 없애야 한다. "전쟁이 얼마나 구역질나는 것인가. 더 구역질나는 것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서 전쟁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프랑스 작가 로맹롤랑의 말이다. 남북은 남북 젊은이들에게 만남을 허하라. 그들을 전쟁터가 아닌, 대화의 공터에서 만나게 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본래 지닌 창의적 기질을 믿어야 한다. / 南 ●



<아주인사이트> 여름호 특집  
AJOUINSIGHT  
2017 SUMMER  
SPECIAL  
PEACE KOREA

특집 기고

### '아주 남북한 보건의료연구소'의 성과 다시 새길 때



위대대학 초대 학장 이성낙 前 아주대학교보건의료원장

의료인으로서 우리나라 통일 이후의 문제를 짚어보라는 제안을 받은 후, 필자의 기억에서 멀어져도 너무 많이 멀어진 '사건'들이 다시 뇌리(腦裡)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필자가 남북 통일 이후의 보건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독일이 통일된 다음, 옛 동독 지역을 방문하면서부터였다. 1960~1970년대에 의대생으로, 전문의로, 교수로 서독에서 생활할 당시 필자는 서독과 동독, 동독과 서독 간에는 비교적 원활한 교류가 있었다고 믿었다.

서로 적의만 드러내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자 독일 의료계의 현실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옛 서독과 옛 동독의 관계가 생각보다 경직되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 것이다. 현지인들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보다 서로 다른 의료 시스템에서 발생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질의한 후, 이 문제를 당시 대우그룹 운영석 회장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룹 내의 검토 과정을 거쳐 대우그룹은 설립 기금(5억원)을 조성해 재단법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를 개설했다. 국내 최초로 통일 관련 의료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바로 1997년 9월3일의 일이다.

연구소는 해마다 정례적으로 관련 세미나를 기획·진행하면서 국내 의료계는 물론 타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력해 북한 보건 의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한 1999년 <독일 통일의 보건의료체계 변화(손명세, 이용갑, 박종연)>를 필두로 10년에 걸쳐 <남북한 보건의료> 논총 10권을 출판하기도 했다. 세상에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훗날 매우 유용하게 쓰일 업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2007년, 10년 동안 짧지만 뜻있는 발자취를 남긴 재단법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는 재단 기금과 함께

### 정치인·전문가 통일 총론엔 동의 각론·세부분야 관심 아쉬워

하는 몰이해와 상충된 관심이었다.

분단된 조국에서 반세기를 넘게 살아온, 그리고 독일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갈구하던 필자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통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귀국 후, 정부 내 여러 통일 관련 부처를 찾아 다니며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통일 이후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계 반응은 예상보다 미소(微小)하기 그지 없었다. 필자를 더욱 실망스럽게 만든 것은 '통일 준비'라는 코드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 같은 정치적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요컨대 거의 모든 정부 관련 기관은 예외 없이 통일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 특히 보건 의료 분야에는 관심이 없었다. 실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을 만나 북한 보건 의료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하기에 이르렀다. 김우중 회장은 몇 가지

### 김우중 前 회장 결단으로 빛 본 '남북한 보건의료' 논총 10권 매우 유용한 업적

아주대학교의료원에 공식 귀속되는 절차를 밟으면서 역사의 한 매듭을 지었다.

글을 끝맺으면서 두 가지 단상이 떠오른다. 하나는 2014년 '통일보건의료학회(이사장 전우택 교수)' 창립 모임의 첫 발표자 김신곤 교수(학술이사, 고려대 의대)가 언급한 말이다. 발표자는 그날 모든 북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는 우리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의 자료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 얘길 들으며 필자는 우리 연구소가 지향해온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 다른 하나는 재단법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의 설립에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모쪼록 한국의료계가 통일을 대비한 노력에 힘쓰길 바라며, 우리 연구소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해본다. ㉠

2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며 필자는 위대한 변화와 거대한 발전을 직접 목격해왔다. '위대한 변화'는 민주화가 진전되고 개방적 사고가 확산된 것을, '거대한 발전'은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현대화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미국 한반도는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필자는 20대였고, 뜨거운 열정과 두려움을 안고 경상남도 김해시에 도착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 음식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기에 걱정이 많았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염려는 곧 사라졌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4000년 넘게 이어져온 한국의 예절과 존중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많은 이들이 도움을 줬다. 2년간 김해고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마음도 곧 편안해졌다. 한국의 동료와 친구들은 필자가 홀로 이국 땅에서 살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이해는,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의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었다.

1953년 7월 이후 이산가족이 된 김해의 많은 친구들은 어디에 사는지 또는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친척과 친

### 대한민국은 '위대한 변화'와 '거대한 발전'의 나라

구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멀리 떨어진 미국에 가족이 있는 필자에게도 그것은 너무 슬픈 이야기였다. 역설적이게도 남북한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서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다를없다. 이런 상황에 낙담한 한국인 동료들을 보면서 필자는 "언제 통일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대체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2001년 필자는 박사학위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주로 거처를 옮겼다. 운 좋게 그곳에서도 흥미로운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다. 전북대에 있는 동안 역시 남북 통일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져보곤 했다. 그에 대한 답은 김해에서와 매우 비슷했다. 그러나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 학생과 교수들이 통일에는 10~20년, 아마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답을 했다.

2003년 초가을, 필자는 아주 운 좋게도 아주대에 채용됐다. 아주대에서도 "언제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왔다. 1990년대에 만났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필자에게 '5~10년, 길어도 20년 후에는 확

실히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한국에 대한 강한 기대와 열망을 느낄 수 있는 대답이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가 아주대에서도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다. 학생들의 답은 과거와 많이 달랐다. 일부 학생들은 통일 가능성에 대해 주저했다. 그들은 통일의 대가가 너무 크며 양측은 이미 너무 많이 달라졌고, 서로 멀어졌다고 이야기했다. 통일의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북한과 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통일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따금 생각이 다른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통일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라고 했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학생들의 답변은 매우 다채로웠다. 주한 미군이 철수할 때, 북한 공산 정권이 붕괴될 때, 또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등의 답이 나왔다. 가장 많은 답변은 북한 정권이 경제적 또는 내부적으로 무너질 때 통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아주대에서 일하는 특별한 혜택을 누려왔다. 매일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아주대 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워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가끔 필자에게 불안하다며 질문을 해온다. 남북간의 불안한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안해 하지 않아

### 한반도 충돌·대립 보다 60년간 평화적 공존해온 셈 젊은이들의 통일관 사실상 긍정적

도 되는지 하는 내용이다.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서 그런지 필자도 상당히 '한국화'되었다. 그런 외국인 학생에게는 언제나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한다. "남북한은 일부 국지적 충돌과 대립이 있었으나 지난 60년 동안 상당히 평화적으로 공존하여 왔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인다. 물론 이 대답은 내 주변의 한국인 교수, 친구, 그리고 아주대 학생들에게 배운 것이다. 그들이 필자에게 거듭 강조한 덕분에 필자도 마음 편히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아주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필자와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통일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기성세대 보다 긍정적이다. 대체로 삶의 밝은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아주대 학생들을 보면서 필자도 통일에 대해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발전적이고 고무적인 영향을 줄 실질적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세계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환호했다. 남북 통일이 실현된다면 아마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할 것이다. ㉠

\*Joseph J. Ball 교수의 영문 원고를 번역, 게재하였음.

특집 기고

### 통일은 전세계를 다시 진보·발전시킬 실질적 가능성



Joseph J. Ball 다산학부대학교수



<아주인사이트> 여름호 특집  
AJOUINSIGHT  
2017 SUMMER  
SPECIAL  
PEACE KOREA

특집 기고

# '분단 한국'은 '통일 한국'을 품을 수 있는가?



MBC 논설위원 김현경 북한학 박사

미 대통령, 휴양지에서  
폭격 명령할 수도  
결과는 고스란히  
한국 감당이 현실

는 역설을 경험하고 목격한 덕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것도 수도 워싱턴이 아닌 휴양지 플로리다에서 폭격을 명령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폭격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국에게는 본토나 해외 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골칫거리이겠지만 우리에게서는 재래식과 핵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폭탄, 모든 무기가 치명적 위협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은 또 하나의 현실이다.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며 위기가 고조되고 또 해소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빠져 있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강화와 한미 동맹'을 외치지만 이미 남북관계를 끊은 우리에게서는 제재의 수단이 없고, 유사시 군사 작전 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미국이나 중국이 대북 정책을 전환해도 우리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더불어 분단이 왜곡시켜온 정치·사회적 현실을 발견했다. 광화문과 시청으로 나누어진 집회에서 북한은 얼마나 많이 거론되었나?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찍혔던 종북, 빨갱이라는 낙인은 또 얼마나 치명적이었던가? 분단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상상력, 그리고 진보를 가로막는 유리천장인지 모른다. 분단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도 새삼 확인되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우리 경제는 타격을

입었다. 분단으로 인한 안보 위기는 해외 투자자나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 확대에 걸림 사유로 작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통일이 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 하고, 누구는 통일 이후 경제 영토의 확장을 상상한다. 통일 이후의 사회 혼란과 비용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고 정말 통일이 될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통일 방식과 과정도 중요한 논의거리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앞에 주어질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누군가는 북한이 무너지면, 아니 김정일이 제거되면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현 체제의 붕괴가 곧 통일 한국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져본다. 바로 지금 2017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하에서 이대로 통일을 맞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정치에서는 포용과 연합보다는 분열과 선정성 경쟁이 두드러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과 양극화, 투자심리 위축으로 고통받고 있다. 출신 지역이나 성별, 인종, 정치적 신념,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노골적 차별도 존재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 역시 충분치 못하다. 많은 사람이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통일을 짧게 살펴보자. 우리는 흔히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야

정치·경제·사회 현실 딛고  
'매력적 대한민국'으로  
나가자

기는 다르다. 동독이 자발적으로 서독의 제도와 체제, 사회 속으로 흡수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독의 정치, 사회, 경제, 복지 시스템과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가치관이 통일 독일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이 흡수되는 통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노선이 다른 정당이라도 연합정부를 구성해온 독일 연방의 열린 정치 시스템과 확장성 덕에 동독이 독일 연방에 가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제도적 통일이 가능했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보편적 복지 시스템과 기독교 윤리에 기반을 둔 가치관, 사회적 포용성에 매료되었다. 우리가 통일을 상상하고 대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대한민국의 현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람직한 남한 사회의 모습과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모습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잠시 물어두었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가치관이 통일 한국의 모습을 담기에 충분한가? 새 정부는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 남과 북의 구성원 모두가 소망하는 대한민국, 언제 어떤 모습으로 통일을 맞더라도 한반도를 능히 품을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설계하기를 소망한다. 물론 통일의 길고 긴 과정과 과정에서의 불안정성 및 위기를 관리할 역량과 인내는 필수적이라는 전제 아래서 말이다. ④

광장은 추웠다. 아이를 찾아달라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광장을 채웠다. 관심의 말은 많았으나, 직접 살을 부대끼기는 어려웠다. 때로는 북도 아닌 사람을 실컷 두들겨 '종북'으로 만들기도 했고, 세상 예쁜 색이 참 많은데 굳이 색 하나를 골라 '빨갱이'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겨울의 광장을 지나 봄이 왔다.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광장의 이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또 손 잡아준다. 지금의 변화가 여러동절하지만 기분 좋다. 이제 그 동안 광장에 섰던 우리의 목소리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귀 기울여 줄 것 같아서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 가만히 생각해 본다. 2000년의 한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나는 초등학교생이었고 미술시간이었다. 교실의 모든 책상에는 흰 도화지가 놓여져 있었고 짝과 나는 싸우고 있었다. 서로 하늘색 크레파스를 먼저 쓰겠다고. 그때 교실에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은 '한반도'가였다. 교실의 TV 속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맞잡은 두 손을 번쩍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낯설다. 지금 그런 모습이 상상이나 될까? 2000년 6월15일, 남과 북의 정상만났다. 남과 북의 국민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반가운 맘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쳤다. 서로의 손을 어루만지고 얼굴을 쓸어 내렸다. 이런 순간이 불과 몇 년 전 과거 속에 존재했다.

통일은  
분단이 파괴한  
일상 속의 평화들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일

험복(북에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혐오하는), 북핵, 독재, 사회주의 등 여러 요소가 남과 북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상상력을 막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이다. 남과 북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며 우리 일상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통일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나중'이 있을 수 없다. 지금 바로 통일을 시작해야 한다. 분단의 현실은 우리의 삶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다. 과거에는 '빨갱이' 한 마디에 멀쩡한 사람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유학 온 재일동포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저 앞만 보고 가야만 했다. 옆을 보면 언제 '빨갱이'가 되어 사라질지 모르니까 말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스스로 '빨갱이'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으므로 자연히 나만 잘되면 되는 풍토가 생겨났다.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거나,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분위기를 바로 '분단'이 만들었다. 물론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는 놀면 안되고, 학생은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가야하고, 대학에 가도 또 열심히 공부해 대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그마저 취업도 어렵다. 모든 것이 분단 때문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분명 분단이었다. 72년 전, 우리 사회에 이념 갈등이란 것은 없었다. 느닷없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려는 한반도에 분단이 찾아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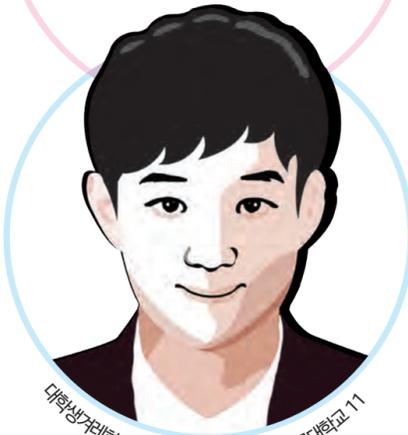
일 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 통일을 꼭 해야 할까? 지금도 힘든데 통일이 되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미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닐까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다시 묻고 싶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른다. 부지불식간에, 이미 마음 속 깊은 곳에 우리는 '통일 국가'를 품고 있다. 하지만 가볼 수도, 만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다. 통일은 단순히 더 잘 살아보자는 욕심이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망가진 우리 가족을 되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통일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 남과 북, 한반도 공동체에 속한 모두 - 의 일이다. 그러므로 분단이 파괴한 평화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일도 바로 우리의 몫, 나의 몫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 전쟁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시대정신이었던 세대를 지나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있다. 하지만 청년들 앞에 놓여진 상황은 암울하다. 사상 최저의 취업률,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 집 값은 비싸고 아이를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친구들을 믿는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투표에 적극 나섰다. 그렇기에 주어진 상황이 암울하다고 해도 더 좋은 삶,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시대를 상상해본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평양,

'민주의 촛불'  
한반도 '평화의 촛불'로  
이어져야

백두산을 지나 유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철학과 경제를 만들어가고 DMZ의 자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우리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청년들의 앞에 통일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놓여있다. 상상력이 막혀 있던 시기, 통일은 상당히 관련적인 언어로 굳어졌다. 하지만 실상 통일은 그다지 어렵지도, 허공에 떠도는 단어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고 금세 깨달을 수 있다. 통일은 과정이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바로 통일이다. 이제 더불어 사는 마음을 준비하고, 더불어 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상대를 응징하려 하거나 적대시하는 태도를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통일을 가로막는 것들에 맞서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촛불을 통해 경험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촛불이 되어 동네 구석구석, 전국 방방곡곡을 밝힌다면 통일은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대학생, 청년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통일을 시작할 때다. 나중은 없다. ④

특집 기고

# '평화'에 다음이란 없다.



대학생기자(하나) 회원 이한희 한국항공대학교 17

\*대학생기자(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주인사이트> 여름호 특집  
AJOUINSIGHT  
2017 SUMMER  
SPECIAL  
PEACE KOREA

특집 인터뷰

# 열린 생각, 열린 대학으로 통일의 문 열자.



前 통일부총리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한완상 교수의 삶은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 그 자체다. 1936년에 태어난 그는 일제 치하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해방 정국의 혼란과 한국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목격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패와 억압, 부조리를 바로잡는 '사회 의사(Social Doctor)'가 되겠다는 목표를 안고 1955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유학 후 모교로 돌아와 강단에 섰지만 두 차례 해직당했다. 독재정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였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뒤 뜻하지 않게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겸 부총리를,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일하며 뜻을 펼쳐왔다. 최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라는 회고록을 통해 젊은 벗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펴낸 한 교수를 직접 만나봤다.

정리\_ 이슬(브랜드전략실)

### ● 기성세대가 과업으로 생각했던 통일이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어렵고 따분한 이야기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을 자기와 관련이 없는, 자기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처한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기에, 불안하고 괴로워서 그렇다. 통일을 자기 문제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왜 반단 되었으며,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다. 역사 교과서가, 어른들이 반단 과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잘못이다.

우리 반단은 '이른바' 해방 무렵인 1945년 8월15일 일주일 전쯤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싸웠던 독일이 패망하자 미국은 히틀러가 사라진 자리에 스탈린이 등장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와중이던 1945년 7월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과 소련 스탈린, 영국 처칠이 참가하는 포츠담 회담이 개최된다. 전임 루즈벨트 대통령과 달리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에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엄청난 신무기인 원자폭탄이 개발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직후였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8월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자, 스탈린은 바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기로 결정한다. 끝이 보이는 전쟁에 손가락만 하나 얹은 격이었다. 1945년 8월7일, 일본군이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황에서 소련군이 만주에서 한반도로 파죽지세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소련군의 남진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을 보고 미국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수년간 싸우며 피를 흘렸고 원자탄까지 사용했던 일본 땅에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미국은 급히 뛰어난 미군 대령 3인을 선발해서 소련 저지선을 어디에 그을지 확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긴박하게 상황실에 걸려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보고 38선을 그었다. 수도 서울을 포함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이 맡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관리한다는 명목이었다. 남과 북을 가르는 선이 그어지는 데 5초, 길게는 20분이 걸렸다고들 한다. 1000년 이상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왔고 일본의 식민지로 설움을 겪었던 우리의 역사를 그들은 하나도 고려치 않았던 것이다. 반단이 되려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 민족을 강탈했던 일본이 겪어야지 왜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 전범국인 일본의 죄를 면제해줬다. 이때 석방된 전범 중 한 명이 현 아베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다. 반면 우리 민족은 그 이후 70년 이상 반단과 냉전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리 조부, 증조부 세대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청년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반단의 내막을 우리 교과서가 제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 1948년 8월15일 이승만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기초를 이어받은 친일 반공 세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 교과서를 통해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고자 했던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우리 헌법에는 1919년 3·1운동을 기반으로 세워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를 짓밟고 건국절을 만들자고 하는 기막힌 일이 진행됐다. 역사를 바로 보아야 한다. 결국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 광복은 우리 조국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날 이뤄지는 것이다.

### ●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론에 대해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한반도 평화에 너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점을 실리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이 바로 '남북 경제 공동체'를 이룩하는 방안이다. 내가 북에 여러 차례 방문해 보았는데,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북한 전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북의 도로는 예전 우리의 국도, 즉 비포장 도로 수준이다. 공항,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토목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일감을 찾으려면 남북 교류·협력이 이뤄져서 북의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경제 대공황 때에도 뉴딜(New Deal) 정책이 있었다. 미국의 고속도로가 그때 거의 만들어졌다. 북에는 질 좋은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있다. 지하자원 중에는 희토류 같이 값진 것도 많다. 중국의 희토류 보다 질도 좋고 양도 많다. 남쪽에는 자본과 기술이 있다.

남쪽의 인구가 5000만, 북쪽의 인구가 2300만이다. 북의 자본과 노동력, 남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져 경제공동체로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하다. 7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이 정도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 단숨에 세계 4대, 5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다.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한반도가 부상하면 러시아가 큰 관심을 보이는 연해주 개발에도 탄력이 붙는다. 중국 역시 '새로운 중국의 꿈'이라고 해서 '1대1로(一帶一路)'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바다와 육지를 통해 새로운 중국 문명을 세계 문명과 만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지는 옛 실크로드로, 해양은 남중국해를 통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우리가 주변국들의 전략과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연계할 수 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설득하며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여러분'이라는 비전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 ●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2017년 현재에도 유효한 이야기일까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나을 수 없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다. 동맹이라는 것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일치될 때 가능한 일이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다. 즉 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단된 지 어느덧 70년이 넘었는데, 지난 세월 동안 가장 큰 적폐 중 하나가 바로 민족 반단을 당연시하며 동족인 북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도록 훈련 받아왔다는 점이다. 반대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가장 큰 시혜자이자 보호자, 우리 안보를 책임져 주는 큰 형님 격으로 생각해왔다. 이런 프레임은 지난 70년 간 친일 냉전 지배 세력이 만들어 온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만 하더라도, 강대국이 '고래'라면 우리는 '새우'였다. 2017년 현재 한반도는 비록 반단되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력은



청년들 맞닥뜨린  
암담한 현재, 불안한 미래에  
반단의 '억울함' 가르치지 않아  
통일 관심 약한 것

반단 당연시하고,  
북한 원수화 하면서  
특정 동맹은  
시혜자·보호자 삼는  
친일·냉전의 프레임이  
가장 큰 적폐

南의  
높은 기술력과 자본  
北의  
질 좋은 노동력과 지하자원  
만나는 경제공동체식  
큰 그림의 뉴딜'하면 단숨에  
세계 4~5대 강국될 것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런데 북핵 위협을 약용해서, 이미 '돌고래' 수준에 올라온 우리의 국력을 여전히 '새우'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한 프레임에 말려들고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난 70년 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친일, 반공, 냉전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을 해체하는 일을 대학이 맡아야 한다. 대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학생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 중세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던 천동설에 대해 묵숨 걸고 이의를 제기했던 코페르니쿠스처럼,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에도 진화론을 주장했던 다윈처럼 과감한 사람이 대학에서 나와야 한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남근 중심적인 문화, 위선적 문화에 반기를 들었던 프로이트와 같이 자유롭게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새로운 생각, 창조적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대학뿐이다. 교과서, 즉 텍스트를 절대 진리로 무조건 숭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2번 쫓겨났다. 유신 체제 비판했다고 쫓겨나 여권과 비자도 없이 미국으로 망명까지 해야 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앞세워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였기에 교수로 월급 받으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민주주의 하자는 대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사형까지 선고하는 시대였다. '참 지식인'이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과 계급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 존재의 구속력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참 지식인의 특징이다. 나는 TK(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둔 군사정권에 의해 고통을 받아왔다. 그들은 색깔론을 통치 메커니즘으로 사용해 반대 세력을 소외시키고 탄압했다. 내 선배와 동창과 후배들이 그 지배 세력이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자유로운 지식인으로서 가치 있게 살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지배 문화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이 괴롭고 외로웠다.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성숙하고 비판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대학이 그 마당이다.

● 대학이란 '자유롭게 배우고 가르치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인상적입니다. 현대 요즘 대학의 상황과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취업에, 교수들은 연구비와 연구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로 지난 날 우리의 죄책, 쌓이고 쌓여온 폐단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 초반 미국 유학 시절,

대학원 세미나에서 관료제를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다. 거장들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발표했는데 교수가 대뜸 물었다. "너의 생각은 뭐냐?" 그런 질문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 "거장들의 생각을 이해해서 정리하기도 어려웠다. 아직 나만의 견해는 없다. 그걸 배우러 미국에 왔다"라고 교수는 그러냐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대학원생쯤 되면 스스로의 생각을, 그것이 아무리 유치하더라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다.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디 건방지게 그러냐'고 기를 죽이기 일쑤였다.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열린 대학에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Zuckerber그가 나온다. 교과서를 신주단지 모시며 달달 외우고 베끼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교과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한 반도 평화를 위해 큰 생각을 할 수 있다. 곧 기업들의 문화도 바뀔 것으로 본다. 과감한 실험을 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기업만이 세계적 반열에 오를 수 있다.

● 대학의 열린 문화가 통일과 평화를 향한 논의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군요. 더불어 우리 사회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촛불 혁명에서 희망을 봤다. 3~4개월 동안 1700만명이 광장에 모였는데, 세계가 극찬할 만큼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경찰 차벽을 뛰어 넘어 청와대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흥분한 청년들에게 어린 여성 몇몇이 외쳤던 구호다. 그들이 '비폭력, 비폭력을 외치자' 청년들의 흥분이 가라앉았고, 촛불의 향연이 이어졌다. 촛불은 축제였다. 노래와 질서, 사양과 관용이 있었다. 눈이 내려 바닥이 질퍽거리고 수많은 인파에 서로의 몸이 스치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었다. 한국적 집단 지성과 감성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 광화문 인근의 점포들은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개방했고 촛불이 걸었던 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말끔했다.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적 행동을 하고 쿠데타를 선동하는 말까지 나왔지만 촛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게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교훈적 대조다. 이번에 광장에는 계급과 세대, 지역과 이데올로기 간의 벽이 없었다. 특히나 좌파와 우파의 벽이 없었다. 아름다운 선진형 민주주의, 통합 만이 있었기에 참 감동적이었다. 친일, 냉전, 반공 세력의 시대가 끝나가며 끝나야 하는 이 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대학에서 이런 문화를 이어가야 한다. 비폭력을 외쳤던 그 힘이 남북 간의 긴장과 폭력적 대결,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는 바탕이다. 이제 폭력적 악순환, 적대적 공생관계가 종식되어야 한다.

한완상은?

한완상은 1936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경북 김천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미국 예모리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1970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했으나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직됐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 투옥되며 또 다시 강단을 떠나야 했다. 이후 미국 망명 생활을 하다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로 일했고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로 일했다. 2004년부터 3년간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했다.

70년 고생과 인내로  
'돌고래' 된 우리  
다시 '새우'로 떨어뜨리려는  
'고래'들과 편승 세력의  
프레임 넘어서자

폭력성, 쿠데타 선동 등  
가볍게 일축한  
'촛불'의 지성과 감성의 힘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든든한 통일 잠재력 느껴져  
대학이 이어가고 책무 맡아야

●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청년들이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견 이해가 된다. 한반도 분단은 여러 단계로 진행됐고, 그렇기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를 극복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분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1945년 8월 10일 전후로 3·8선이 그어지며 국토가 분단됐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단독정부가 수립됐고, 북에서는 김일성이 그 해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 이로써 민족이 2개 국가로 분단됐다. 국토 분단 보다 더 심대한 '국가' 분단이고, 정면 격돌이다. 국가란 폭력을 제도적으로 독점하는 기구다. 그러한 국가끼리 정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이 바로 그 비극이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300만명 이상이 죽었고 1953년에 휴전과 함께 냉전 체제가 시작됐다. 휴전이란 싸움의 '중단'이다. 우리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말하면 '전쟁' 상태다. 부부 간에도 냉전은 열정 보다 더 힘든 일이다. 피곤하고 견디기 힘들다. 그 냉전을 우리는 70년 이상 끌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단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마음 속까지 증오가 들어와 있고, 내면화된 상태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모습을 TV로 보니, 아직도 특정 세력은 색깔론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다. 대학에서는 이런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광장의 시민 명예 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촛불이 캠퍼스로 들어와서 진리탐구의 횃불이 되고, 그 횃불로 우리 정치가 바로 가도록 입력을 넣어야 한다. ●

● 한완상 교수의 저서 중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jou Quarterly Magazine | 2017 Summer Vol.20



◀아주인사이트> 취재팀과 포즈를 취해준 한완상 명예교수. "코페르니쿠스에서 다윈, 저커버그까지 '과감한' 사람이 대학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그는 스스로도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과 계급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참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많이 괴롭고, 외로웠다"고 토로하는 이 노교수와의 인터뷰에서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집게 느껴졌다. / 왼쪽부터 남경호 초빙교수, 한완상 명예교수, 이슬 에디터

사진 김철홍



<아주인사이트> 여름호 특집 AJOUINSIGHT 2017 SUMMER SPECIAL PEACE KOREA

특집 좌담

# 서로를 아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다



남북청년 아주인, 마주보다 남북 문화 좌담 원천정보관, 20170525

<아주인사이트>가 '통일을 주제로 젊은이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남에서 나온 청년들과 북에서 나온 자랐으나 남에서 터전을 잡아나갈 청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비슷비슷한 또래에 아주인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5명의 청년들은 한치의 어색함이나 주저함 없이 연애와 이성친구 등에 대한 대화를 열띠게 이어나갔다. 남과 북의 생활과 문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임평(기계 15), 손철성(기계 15) 학생과 남과 북, 그리고 통일에 관심이 많은 남윤재(정치 10), 서해규(경영 12), 서지선(영문 14) 학생의 이야기다.

정리 이슬(브랜드전략실)

**남윤재:**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평소 북에서 온 친구들에게 이런 저런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 주저한 적이 많았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다.

**임평:** 나는 함경북도 회령(한반도 북동쪽으로 두만강을 국경으로 중국과 마주하고 있음)에서 태어나 자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모인 김정숙의 고향이고 백살구가 유명한 지역이다. 17살까지 회령에 살다가 중국을 통해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한국에 왔다. 남으로 오기 전까지 중국에 2년 정도 머물렀다.

**손철성:** 양강도 해산이 고향이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도시다. 백두산과 가까운 곳으로 감자가 유명하다. 나는 2011년, 17살 때 태국과 라오스를 거쳐 한국에 왔다. 먼저 중국을 통해 남으로 넘어 와 있던 이모의 도움으로 가족이 모두 함께 왔다. 한달 걸렸다.

**서지선:** 남에 와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하다.

**임평:** 언어 때문에 힘들었다. 처음에 와서 대안학교에 다녔고 그때는 새터민 학생들끼리 생활했다. 고등학교는 일반학교로 진학했는데, 그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말을 아끼게 됐다. 내 특유의 억양 때문에 한 마디만 해도 친구들이 바로 알아줬다. 북에서 왔다는 티를 내기 싫었다.

**손철성:** 나도 일반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별로 힘든 점은 없었다. 오히려 친구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북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 별 신경을 안 쓰고

## “ 통일·북 관련 책 보면 의아해 하는 현실, 통일에 중요 역할 맡아야 할 미디어 행태 아쉬워 ”



남윤재 정치외교학과 10학번

## “ 북은 3대째 세습정권 통일 더 어려울 것 그래도 교류·교역·교육의 준비·실행 놓지 않아야 ”



임평 기계공학과 15학번 / 함북 출신

편안하게 대해 줬다. 대학에 와서는 공부 때문에 힘들다. 학업 자체가 버텨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임평:** 맞다. 특히 이과/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손을 댈 수가 없다. 학교에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나마 어려서 남쪽으로 온 우리 같은 경우 적응이 빠르다. 3년이면 남쪽에 적응한다. 북에서 추운 지역에 살았던 나는 남쪽의 추위를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 처음에 1년은 짧은 점퍼만 걸치고 살았다. 그런데 3년이 되니 패딩 점퍼에 손이 가더라(웃음). 그런데 부모님 세대의 경우 남에서 적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특히 언어가 문제다. 북에서는 순우리말을 많이 쓰지만 남에는 외래어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 북에서 온 어른들에게는 키(key), 셀프(self) 같은 흔하게 쓰는 말부터 문제가 된다.

**서해규:** 남쪽에 오기 전과 지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남과 북의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생각은?

**임평:** 북에 있을 때에도 남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는 했는데, 남쪽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국에 가 있던 엄마가 불려서 두만강국경 쪽으로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북을 빠져 나오게 됐다. 엄마는 이미 우리를 부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나는 두고 온 동생과 아픈 아버지 생각에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다. 장남인 내가 나무를 구해 불도 때고 식량도 구하려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가까운 곳에는 이미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떨감을 구하러 50~60리(20~24km) 걸어가야 한다. 남쪽의 드라마나 영화는 엄마들이 많이 본다. 밤에 이불 뒤집어쓰고 몰래 본다. 내가 본 것 중 인상적인 영화는 <친구>다.

**손철성:** TV 뉴스에서 남쪽의 테모 장면 같이 자극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준다. 북에서는 오직 알려주는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을 많이 봤다. 남과 북에서 비슷한 점 보다는 다른 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남에 와서 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이름,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북에서는 옆집 어른들

을 '큰아빠, 큰엄마'로 부르면서 살갑게 지내는데 남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임평:** 북에서는 점경과 내륙 지역의 정보 차이가 크다. 점경 지역에는 정보가 많고 내륙 지역은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우리가 북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남쪽의 1970~1980년대랑 많이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도 예전 이야기가 북쪽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는다. 나는 어릴 때 서리하러 많이 다녔다. 친구들과도 밖에서 어울려 많이 놀았는데 놀이문화도 남쪽의 옛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 집집마다 술을 담그는 문화도 남아있다. 우리는 옥수수로 술을 담그는데 집집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 북은 비교적 술에 관대해 몸을 망치는 사람도 꽤 많다.

**서해규:**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주최한 남북 학생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가기 전에는 고정관념 탓에 '서로 외모부터 조금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전혀 그렇지 않았다. 새터민 친구들을 포함해 40여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언뜻 봐서는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북에서 온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응력과 친화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남윤재:**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우리 서로의 생각이 궁금하다.

**손철성:** 통일 참 좋은 이야기인데 나는 통일은 절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미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고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셨다. 북에서는 철저히 김일성 일가 3부자 위주로 교육하고 역사도 남쪽과는 다르게 가르친다. 예를 들면, 남에서 조선 건국의 영웅으로 묘사되는 태조 이성계가 북에서는 역적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 아닌가. 남쪽 사람들이 그 부담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서해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일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떨어져 살면서 생겨난 언어를 비롯한 문화의 차이를 상호 교류를 통해 마주하고 또 극복해야 한다.

**서지선:** 무력통일 즉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평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중학교

## “ 적대적 교육 오히려 역효과 포괄적·정서적 공감의 통일교육 절실해 ”



영어영문학과 14학번 서지선

## “ 미디어로만 접하는 서로는 비슷한 점보다 다른 점을 더 보게 돼 직접 서로를 보아야 ”



기계공학과 15학번 손철성 / 양강 출신

때 '리더십 캠프'라는 이름으로 땅굴 체험을 간 적이 있는데, 북에 대해 적대심을 심어주는 교육 일반도여서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 많았으면 한다. 대학에 와서 분단과 통일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받은 그 교육과 괴리가 엄청 크다. 이념이나 색깔과는 관련이 없는, 보다 포괄적인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임평:**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본다. 통일을 위해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호 교류와 교역을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남과 북 양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북쪽의 경제가 발전되어야 하고, 남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좀더 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남윤재:** 나는 정의와 학생이다. 그런데 북한 관련 책을 보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건 왜 보나?"라고 묻는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책을 보고 있으면 "이 책 좋아?"라고 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통일부 산하에 통일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통일 교육에 대한 좋은 콘텐츠도 많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내 경우 북한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크로싱>을 보고서 북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미디어가 북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손철성:**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고 큰 것이 맞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다. 북한이나 새터민과 관련해 유명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게 있다. 한번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시청률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과장해서 나쁘게 보이게 하거나, 일부의 이야기인데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비취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남윤재:** 철성이의 말처럼 미디어가 재미있는 콘텐츠, 인기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미화하거나 과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

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자리가 많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

**서지선:** 예전에 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남북한 학생이 함께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을 선보인 적이 있다. 실제 양쪽 학생이 만나서, 한 자리에서 녹화한 것은 아니고 편집 기술을 통해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인데 인상적이었다. 비슷한 또래의 학생이 함께 퀴즈를 푸는 모습,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는 서로 참 비슷하구나'라는 인상을 줬다. 선정적이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다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잔잔한 콘텐츠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서해규:** 나고 자란 곳,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 같다. 더불어 '아, 북쪽의 이런 점은 정말 좋았는데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임평:** 친구 간의 정이 그렇다. 북에서는 여름이면 '농촌 동원'이라는 게 있다. 학교에서 평소에 농사일, 땀감하기 같은 일을 배우고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농장 등으로 일하러 가는 거다. 친구들과 함께 일하면 엄청 끈끈한 정이 생긴다. 함께 어려운 일을 하면서 잘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도와주고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생기는 깊은 정이다.

**손철성:** 나도 비슷하다. 북에는 학교 급식이 없다. 점심 때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가서 먹고 와야 한다. 그런데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 친구들이 조금씩 밥이며 반찬을 달아서 모아준다. 그런 정이 그렇다.

**서지선:** 통일이 된다면, 다들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나? 나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한반도를 종단해 신의주까지 여행하고 싶다.

**손철성:**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벌어들 돈이 좀 있으면 북에 땅을 사고 싶다. 내 고향은 너무 추운 지역이라 별로이고, 평양 근처에 땅을 사겠다.

**서해규:** 나는 북한 여성과 아름다운 연애를 꼭 한번!

**임평:** 고향에 사는 사촌들이 보고 싶다. 내 또래인 사촌이 많은데 우리 엄마가 중국에 가 계실 때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줬다. 또 북에 살 때는 상상도 못해봤던 명소 여행도 가보고 싶다.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통일되면 모든 게 다 변할 테니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다.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을 북에서 해보고 싶다. ④

## “ 남·북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교류로부터 일궈가자 ”



경영학과 12학번 서해규



<아주인사이트> 여름호 특집  
**AJOUNSIGHT**  
**2017 SUMMER**  
**SPECIAL**  
**PEACE KOREA**

특집 만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첫 걸음이지요~

# 북에서 온 아주인들이 전해주는 만화로 보는 '문화차이'

기획 <아주인사이트> 그림 이창우



이창우 작가 / 대교, 웅진, 국정홍보처, 법제처, 서울경 제신문, 어린이동아 등에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만화와 일 리스트를 그렸습니다. 책으로는 <아류정전> <말괄량이 길들이기> <우리 역사를 움직인 맛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위키즈', '독서평설', '과학동아' 등에 연재중입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jou Quarterly Magazine | 2017 Summer Vol.20



# Ajou Institute of Unification, ONE KOREA ADVENTURE

아주통일연구소 2017 미래세대 '통일탐사어드벤처' Report 0427~0501

# 770 km



사진 <아주인사이드> 외



1 정면 차량에 '아주대학교'를 크게 붙이고 연길시에서 용정-이도백하-백두산-도문-양천-연변과기대 등 거의 770km의 통일 탐사길을 달린 26인의 대원과 2층형 리무진 버스. 맨 왼쪽은 기사 귀반히 씨이고, 그 바로 옆은 경제학도 출신 중국 동포 가이드 김진환 씨다.

2 3 4 조선족 자치구답게 현지 국제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한글을 만난다. 거리의 간판과 교통 안내판에서 차량 부착 스티커, 심지어 중국제 맥주 등 제품명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일제 시대 본토의 힘이 특히 만주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 선조의 강력한 항일 투쟁으로 조선족의 중국 역사에 대한 공헌을 여러모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서 이 한글여행을 시작되었다.



5 별의 시인 윤동주



6 사진: 진해림

6 연길 남서쪽 20km 3-13 민세운동의 용정(龍井) 1880년 경 조선인이 우물을 처음 발견하여 도시의 이름이 되었다. 시대성중학교(현 룡정중학교). 수많은 조선 지식인, 애국지사,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학교다. 옛 교사의 앞 마당에는 윤동주 시비와 동상이 세워져 있고, 2층은 그의 기념관이자 각종 사료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 포하늘

8 불과 해발 387m의 비암산에서도 그 광활함을 알게 하는 넓디넓은 만주의 모습과 길게 누워 흐르는 해란강.

9 10 해란강을 내려다 보는 비암산에는 민족의 가곡-선구자 가사에 나오는 일송정과 푸른 숲이 한 그루 서있다. 나무 아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회합하며 항일 의지를 새기고 투쟁 계획을 세우던 성지다. 이를 알게 된 일본군은 비암산을 사격장으로 쓰고 소나무에 약물을 주사하는 등 훼손했다. 1980년 동포들이 다시 심었으며, 고사와 식목을 반복, 아주탐사대가 기념 촬영을 한 소나무는 그 이듬 번째 것이라 한다. 탐사대는 일송정까지 기념 촬영을 하고, '선구자를 함께 불렀다.'



11 도보 이동하는 조경훈 탐사대장(왼쪽 세 번째)과 대원을 모습



12 4박5일 내내 백백한 낮의 탐사 일정을 끝내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자마자 세미나실에 모여 강연-토론을 밤 10시까지 이어갔다. 13 뿐만 아니라 이동 중의 시간도 심분 활용, 탐승하 자마자 강연과 토론으로 달랐다. 만주의 붉은 노을 속 귀소길의 릴레이 스피치 장면.



15 통일문제와 양교의 교류에 대해 회담을 나누는 아주대학교 김동연 총장과 연변대학교 김진환 총장. 그는 서기장 직위를 가진 중국 고위공직자이기도 하다.



16 연변대 재직 동포 교수들과 대학본부 앞에서의 기념 촬영



17 '백두의 정기로 시작되는 한글로 또렷하게 새겨진 연변대 설립 정신 3500개가 넘는 중국 대학교 중 유일한 소수민족 중심 대학이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학교의 공식언어.



18 19 아주대-연변대의 학술 세미나. 연변대학교 재직 중인 동포 학생과 아주대생 탐사대원과의 워크숍도 이어졌다. 양쪽 학생들은 이 때를 '남북 젊은이의 이질감도 동질감도 순식간에 알고 깨달은 시간'이라며 '민남과 대화가 통일의 시작임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20



14 김동연 총장(현 경제부총리)은 통일에도 '유쾌한 반란'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1 '정백산'이라고 소리 지르는 듯 크게 써놓은 중국 쪽 백두산 입구와 밤을 밝히던 사구형 시계탑 모습. 마치 북미의 어느 리조트처럼 대형화 되어 있었다. '자본으로서의 동북공정'처럼 보여 우리에게 '쓸쓸한 현대화'로 비쳐졌다.



22 저지구 일대에 산재한 항일 유적지에 계속 들렀다. 항일 의사의 묘지에서 묵념하는 탐사대원들.

### 영양실조로 저능아 대물려 출산 인도적 지원엔 조건 없어야

중국의 도문시와 북한의 남양시를 잇는 낮은 다리 위로 지금도 양측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 그런데 매일 아침 도문 쪽에서 북한으로 뺑을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간다. 한국의 후원자가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뺑을 전해주는 사업을 수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 후원자를 몇 년 전에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 분이 전해주는 얘기에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던 1990년대 말에 아기를 임신한 산모들은 먹을거리가 없어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두뇌가 미발달한 상태로 태어났다.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여 2세를 임신하게 될 나이가 되었는데, 이들이 낳는 애기도 대부분 두뇌가 미발달한 저능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실은 남한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등 많은 의학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산모와 아이들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지만, 통일이 되면 우리는 이들을 양지로 데리고 나와 돌봐주어야 한다. 북한 어린이들이 운동과 같은 인도적 지원의 자원은 정권이 나 이데올로기를 떠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호환**  
경명대학장



22



23 중국 용호각의 기념촬영용 삼국기 뒤로 광활하게 펼쳐진 두만강 하구 북-중-러 삼국 접경지의 아름다운 전경. 강 오른쪽이 북한이다. 색의 대조가 뚜렷하다. 강을 가로지르는 조-러 철교가 있고, 원 폭 상단의 푸르스름한 빛깔로 보이는 부분이 동해다. 조용함이 구체적 무거움으로 느껴지는데, 동시에 무언가 큰 잠재력이 온 몸을 짐작 되는 듯해 대원들의 시선과 감회를 오랫동안 묶어놓았다.

### 러시아-중국-조선변경기념 俄罗斯-中国-朝鲜边境纪念

### 길 찾는 나그네 심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도백하로 향하는 여정, 달무리가 지는 듯 싶더니 기어코 비가 흐느끼듯 내렸네. 앞서서 우리의 바람을 슬퍼라도 하듯이... 다음 날 백두산 천지에는 눈이 쌓였는데 천지를 보지 못한 아쉬움에 알드레지드의 노래가 떠오르네. "하루가 죽어가듯이 저녁을 바라보라.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듯이 아침을 바라보라"... 뜻이 있는 사람에게 풍파가 있다네. 찾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다 한 폭 판으로 항해하는 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바라건대 오늘 백두산에서의 비록 작은 이 인연이, 소소한 대화가 삶에 도움 되는 만남이기를 손 모아 빌어 보네. 책에서 만 보던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난 날 같던, 빛이 가득하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네. 내가 마주친 고흐를, 내가 마주한 백두산을 꼭 만나보길. 나그네처럼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나.

**김용순**  
다산학부대학 교수



24 북핵문제로 계속 되는 경제압박 탓에 접경지 경제는 악화되어 있었다. 교류가 경제이고 평화다.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현장에 답이 있다

청년은 어디에서 미래에 도전해야 할까? 북-중 접경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고,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낯설지 않은 곳이다. 엔지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도입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큰 도시다. 지금 부러워 하는 연변이 내일은 우리의 부러움 받는 곳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저성장장을 지속하면 말이다. 활로를 찾는 데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현실적 대안이 된다. 북-중 접경지는 머지않은 기회의 땅이다. 훈춘은 더딘 속도지만 사회주의 3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꿈자락거리고 있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곳보다 만들 수 있는 곳에 기회를 모색하면 어떨까. 지도를 펼치고 차가운 머리과 뜨거운 가슴으로 미래를 걸어볼 만한 곳을 찍어 보라.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 入防川統一 방천에 들어서서 통일을 생각하네

迂迴遼路入防川 三國接壤在眼前 中防川面露河山 霧河山迎豆滿江  
良田沃畜緜滄波 青山瀟湖爲風光 豆滿滄水入東海 天高地坪爲萬人  
飛鳥流水越國境 朝露凝道行南北 日光薰風觸全身 關關白雲何知心  
今日不可小一步 來日必成大一步 東北平和位于其 一片丹心必統一

먼 길 들어서 방천에 들어서니  
중국의 방천은 하산을 마주하고  
기름진 밭과 눈이 바다와 어울리고  
두만강 푸른 물은 동해로 들어서며  
새들은 날고 물은 흘러 국경을 넘나들며  
따스한 햇살과 훈풍이 온 몸을 감싸네  
오늘은 한 발걸음도 딛지 못하나  
동북아의 평화가 여기에 달렸으니  
중국의 방천은 하산을 마주하고  
기름진 밭과 눈이 바다와 어울리고  
두만강 푸른 물은 동해로 들어서며  
새들은 날고 물은 흘러 국경을 넘나들며  
따스한 햇살과 훈풍이 온 몸을 감싸네  
오늘은 한 발걸음도 딛지 못하나  
동북아의 평화가 여기에 달렸으니

눈앞에 세 나라 경계가 펼쳐지네  
러시아 하산은 두만강을 맞이 하네  
푸른 산과 석호는 장관을 이루는데  
하늘은 높고 땅은 넓으니 만민을 위한 것이네  
조선과 러시아 철도는 남북을 달리는데  
까락 갈매기와 흰 구름이 내 마음을 어찌 알까  
내일은 반드시 큰 발을 내디디리  
한 조각 붉은 마음으로 통일을 이루리



**박영무**  
기계공학학과 교수

### 미완성의 한반도

북-중 접경지역은 단순한 국경선 이상의 것이 있다. 민족의 뿌리와 역사,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보았다. 북한도 지역의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대한제국의 모습은 분단된 한반도가 아니었으리라. 목숨 바쳐 되찾은 조국의 모습은 완전하고 자유롭고 화합이었었으나, 현실은 동떨어져있다. 분단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독립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어딘가에 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닐까? 분단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비용도 치르고 있다. 사고 자체도 분단의 프레임에 갇혀 창의력이 제한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다. 선-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칭 하여 섬의 한계로 살아 가는 이상한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최고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미완성인 한반도가 완성되기 위하여 나아가자.



25 도문대교 앞 '중조우호비' 앞에서 북한의 남양시를 한없이 건너다보던 대원들. 그래, 분단의 관원들이여! 모두 보다 더 우호적이어서! 평화로 가자!

### 통일은 현재진행형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사무국장

"여기는 백두산, 우리의 맥박이 시 작되는 곳입니다. 이 맑고 깨끗한 민족의 정기,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92년 여름 백두산 배경으로 제작된 모 음료 광고 카피다. 19살이었던 필자는 화면 속에 펼쳐진 백두산에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민족에 대한 열망을 품었다. 그 후로 25년. 청년이 되어 청년들과 함께 백두산을 찾았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개발의 흔적으로 옛 모습의 정취가 사라지고 있었다. 연변 조선자 치주 역시 순수한 '연변 사람' 이미지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선명했다. '미래세대 통일탐사'에서 학생들의 열정과 성기는 이들의 헌신을 보았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율적 기획으로 실행되었고 학교의 어른들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했다. 총장-교수-학생들이 같은 버스에 타 열띤 스피치를 나누는 모습은 없다. '유쾌한 반란'이 외침만이 아닌 변화의 고백이자 표현이란 생각이 들었다. 상상력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라 한다. 참가 학생들이 통일의 의미를 찾고 과감히 자신을 던지는 10년 뒤, 20년 뒤의 그들을 상상해 본다. 그들에게 나에 게 통일은 현재진행형이다. 4



27 북한과 중국을 잇는 도문대교 아래 중국 쪽 두만강 기슭으로 때려와 파손된 채 쓰러져들과 같이 쪼그라든 북의 인공기. 아주 큰 비는 아니었으나 북한엔 '2016 대홍수'였다고. 최근의 /

28 '방문객 환영'을 거의 죽여서 내보내는, '대화 보다는 폭력의 정권 운영도 바꾸지 않으면 '인민'들에게 안전가 쓰레기 처리가 될 것이다.



29 29 30 중국 두만강변의 방천시 입구에 커다랗게 세워진 남북자 수호소. 견여있을 인간 북한인이 떠 오르지 마음이 어려웠다.



26 삼국 접경지에 '동북공정'의 선수(先手)를 치듯 거대하게 세워놓은 용호각 앞에서 '포즈'를 위한 대원들.



# Ajoun Institute of Unification, ONE KOREA ADVENTURE

아주통일연구소 2017 마레세데 '통일탐사어드벤처' Report 042785-0601 '어드벤처' 제 1기 **통일의 젊은 목소리**

"도러내어진 우리 정체성의 일부를 적시게 됐다. 북한 주민의 신경발달 장애 문제를 통일 한국의 특수성에 근거해 연구해가겠다."



박주연 신라대학교

"말 없던 호텔이 북 노동자에게서 아픔을, 북한 유학생 출신 연변대 학생과의 대화에서 흥미를 느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다가 육중한 책임감을 안고 돌아왔다."



김소연 국립중앙대학교

"일송정과 북-중-러 접경지는 '오연지'를 줄게 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에 가깝다. 행동하는 통일이 필요할 때다."



김동현 경희대학교

"역사는 남북을 묶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연변은 '통일의 예습 무대'였다. 고정관념 탈피에서 '남북 상호 문화 존중'까지가 통일의 가능성이 있다."



남은재 경희대학교

"강행군의 프로그램 이어서 가슴에 크게 남는 게 많았다. 두만강 건너 북한 땅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역사학도로서 통일 열정을 갖게 됐다."



이정곤 서울대학교

"그간의 내 통일은 대한민국의 이익에만 치우친 '이기적 통일'이었다. 통일을 더 크고 깊게 봐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선시연 경희대학교

"운동주가 중국인이라 나! 중국 땅의 중학교 운동장에서 한국어 합성이라니! 이곳 독립군이 우리 땅에서 대접을 못 받다니! 통일외교동아리 '새봄' 일일으로서 반성과 다짐의 시간이었다."



션희구 경희대학교

"분단의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명동마을 이장님 말씀, 중국 국적이지만 '민족'이라는 단어로 큰 의미와 긍지를 가진 동포 학생들의 말 가슴에 새겨졌다."



윤다진 신라대학교

"통일은 '접속'이 계이고 직관적 흥미도 준다. 우리 학교의 이 매력적이고 심오한 프로그램이 계속되길 바란다."



이상연 고려대학교

"비록 천지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백두산의 기운만으로도 무언가 총탄했다. 통일에 대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도록 해야겠다."



이재원 한양대학교

"백두산은 너무 아름다웠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크나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인아 신원대학교

"탐사 중 만난 '조선족'은 미디어에서의 '조선족'과는 달랐다. 민족권도, 통일 열원도 강했다. 우리는 말도, 글도 하나다. 한민족이다. 이보다 큰 통일 이유는 없다."



임동현 신라대학교

"우리는 자유롭게 이곳까지 왔는데, 손에 잡힐 듯한 두만강 건너 저 땅엔 자유가 없구나. 역사를 알고, 통일을 고민하는 이 행사에 주저 없이 참여해보길."



조주연 한양대학교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꾼 탐사였다. 백두산의 풍경은 '평범했던 나의 통일관'을 일깨우고 응원해주는 것 같았다. 물질적, 남한 입장만의 통일을 넘어서라고..."



천혜밀 스포츠크레버대학교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까지의 실새 없는 토론 등으로 내게 남아있는 '우리'라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통일이 필요하냐? 물음표를 다시 생각했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 확산의 사회를 기대한다."



표하범 가천대학교

32 백두산 아래 거대한 힘업수 원시림이다. 5월 초에도 아래는 눈을 품듯 남겨두었지만 이끼에서 거대한 소나무들까지 '푸른 공존'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진: 백두산

내가 일하는 곳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다. 연변과기대는 북한과 차로 30분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의 변경(邊境)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북한에 대한 소식과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곳 중 한 곳이다.

우리 민족의 영원 통일, 어느덧 나라가 나누어진 지 60년도 훨씬 넘어버린 시점이라 북한은 이제 남의 나라, 원수 같은 배다른 형제 같이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 만주와 간도 땅에서 피땀 흘린 그리 멀지 않은 선조들을 생각할 때면, 반쪽짜리 나라가 그저 죄송스럽게 느껴진다.

100여 년 전 나라를 빼앗기고 이곳으로 넘어온 그들은 쓰고 먹고 남은 재산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못 먹고 못 입어 가면서 약탈같이 모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라의 광복을 위해 내놓았다. 그분들이 원했던 나라는 당연히 반 토막의 조국도 아닌, 통일된 하나의 땅이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 하고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은 바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 온 그 분들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혜택은 그저 살아남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법인가.

나는 이러한 빛진 자의 심정으로 이곳 연길에 왔고 이곳에서 광복군들의 후손인 젊은 조선족들을 가르친다는 나름의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아직도 연길을 낫추된 시골 동네 품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연길은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 속에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도시 중 한 곳이다. 이곳을 방문한 많은 한국인들이 "그 동안 연길을 잘 몰랐다"라고 이구동성 말할 정도다.

이곳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내게도 모국 젊은이들의 고민이 들려온다. 고민이 많기는 중국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 가고 직장

## Global Alumni Message

특집 해외 동문 메시지

# 延边科技大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백시현

산업공학과 88학번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경영정보과 교수

취업과 진로  
치열해질수록  
세상을 더 넓고  
길게 보는 삶을...

생활은 쳇바퀴 같아 무의미하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안 없는 고민'으로 젊은이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젊은이들의 사회적 책임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보려는 자세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해본다.

현재 많은 기업들도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영리 재단을 직접 창립해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외에 진출해 봉사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도의 물질이 채워져 가는 삶의 행복과 기쁨은 큰 돈을 버는 것보다 값질 수 있다. 모교의 보다 많은 후배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백시현 동문은 아주대 산업공학과 88학번으로 석사·박사를 마쳤다. IMF사태의 여파에도 대형할인마트 관련 새비즈니스 모델로 창업에 뛰어들어 좋은 성과를 거뒀고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겸직교수로서 연구활동도 이어나갔다. 젊은 시절 품었던 넓은 세계에 대한 열망과 민족·통일에 대한 꿈 등이 섞여 연변과기대에 교수로 합류하게 되었다.

"조선족들은 북을 차가로, 남은 시집으로 여기며 1960~1970년대 북한이 중국 보다 잘 살 때에는 중국에 살던 조선족들이 북한으로 이민 가기도 했다"라고 소개하는 백 동문은 고국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는 점을 좀더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다. 더불어 "독도는 우리 땅"식의 꺾대중요하지만 북과 평화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④



#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아주대는 2015년 아주통일연구소를 설립했다. 아주통일연구소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과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통일 교육 활성화와 인식 개선, 통일 시대 준비 등에 앞장서고 있다. 통일연구소의 활동에는 아주대의 비전에 뜻을 같이한 기업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해 BMW코리아는 3억원의 '유쾌한 반란' 기금을 쾌척했다.

특집 인터뷰



- 1 통일 관련 교과 교육
- 2 통일 관심 제고 위한 소통
- 3 전문가 강연 및 워크숍
- 4 학술 활동

- 1 통일 관련 교과 교육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 총 12학점을 수강하면 '통일트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과과목으로 <북한사회의 이해>, <통일 한국의 이해>, <21세기 국제 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개설했다. 의대와 약대 간호대에서 <북한의 의료와 공중 보건>, 공대와 정보통신대.자연대에서 <북한의 IT와 인프라> 같이 단과대학별로 전공 교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 2 통일 관심 제고 위한 소통 주입식 이론 교육에서 탈피해 실질적·소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새터민 청소년과 아주대 학생들이 함께 하는 '아주 멋진 여름 캠프'와 북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열린통일캠프'를 열고 있으며 북의 장마당을 재연하는 '와글바글 장마당', 놀이와 체험으로 다가가는 문화 축제 '통일 축제 한마당', 피주 DMZ에서 바라본 통일체험학습 등을 마련해왔다.
- 3 전문가 강연 및 워크숍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남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주통일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순회강좌, 통일전문가포럼, 경기통일포럼, 교수와 교직원들을 위한 통일 세미나 '아주 멋진 통일과 나눔 강연' 등을 열고 있다.
- 4 학술 활동 통일에 대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주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상해교통대학교와 아주통일연구소가 '한반도 통일의 평화협력과 교류'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고, 학생 자기 주도형 연구(학부생 연구, UR)나 교수 연구활동, 분야별 전문가 모임도 지원한다.

1 통일교육 선도대학 : 통일부가 대학 통일 교육 모델 개발과 통일 관련 교과목 확대 등 대학사회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사업. 아주대어 서울대, 숭실대, 숭실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6곳이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서울, 인천, 강원, 부산 등 17개 지역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아주대학교는 경기 남부 지역 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됐다. 센터는 지역 사회의 통일교육 기점으로 초·중·고교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일 관련 교육을 담당한다.

## '거꾸로 독일통일형'에 아주가 앞서가겠습니다!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 · 국제대학원 교수

● 아주통일연구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한마디로 '실사구시' 정신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온 양대 대북정책 모두에 아쉬움이 많다. 봉쇄정책은 아무것도 봉쇄하지 못했고 햇볕정책도 '퍼주기' 논쟁에 시달려왔다. 특히 퍼주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상호주의 ▲투명성 두 가지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국민적 동기가 바탕이 된 남북협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독 역시 '3불 정책'을 기조로 동독을 지원했다고 한다. 문기 전에는 주지 않고, 대가가 없는 돈은 주지 않으며,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게 3불 정책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남과 북의 특수성에 함몰되어 있지만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북은 개발대상국으로서 최빈국, 체제 전환국(transition state), 취약국가(fragile and conflict state) 등 보편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가들을 지난 70여년간 지원한 경험과 교훈이 있다. 아주통일연구소는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개발협력의 국제적, 보편적 기준을 남북 관계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특히 아주대학교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남북협력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 통일 전후 대학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나? 독일 통일에 있어 교회와 학교 두 곳이 큰 역할을 했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동독에는 종교적 문화와 관심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교황이 동독을 방문했을 때 공산당의 당서기가 교황 영접위원장을 맡을 정도였다. 동·서독의 교회들 간에 교류가 많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했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교회의 역할이 컸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베를린이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서 베를린 대학들이 '해방구' '성역'의 역할을 했다. 학문의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넘어온 이들을 품었고 동·서독 학생들이 교류하는 장(場)이기도 했다. 인도적·문화적인 민간 차원 교류에 있어 교회와 대학은 그야말로 최전선이었다. 대학이란 국가나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일, 여러 풍파를 뚫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통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이뤄가야 할까? 최근 몇 년간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이 부진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쉽다. 이제 남북 간의 체제경쟁, 이념경쟁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소프트파워가 상당한 수준이다. 일본 대중문화에 문을 열기 전,

“ 사회·경제 통합에서 정치적 통합으로... 청년들에 친숙한 언어와 담론으로 다가가야 ”

“ 중장기 로드맵 대학이 제시해야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담론 주도할 것 ”



우리 사회에 얼마나 걱정과 우려가 많았나? 하지만 실제로 염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남북 민간 협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분쟁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독일이 정치적으로 통일되는데 1년, 경제적으로 통일되는데 10년이 걸렸고 사회통합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들 한다. 우리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통합이 먼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무리였을 때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 한반도를 경험한 세대가 노령화되면서 통일을 원하는 시민, 그리고 통일 관련 시민단체가 노령화되고 있다. 어른들에게는 통일이 꼭 달성해야 할 '미션'이지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 젊은이들에게는 울림이 있는 언어와 담론으로 다가가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철저하게 실의,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통일비용과 관련해 우리가 모르는 분단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통일이 가져오는 수많은 기회를 설명해줘야 한다. 한반도가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로 둘러 쌓인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말에 권위가 생길 것이다. 우리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기도 수월해진다.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비전이다. 아주통일연구소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하고 있다. '통일 헌법'을 쓰는 심정으로 통일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 아주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 부모님 세대가 경제개발을 이끌었고, 형님 세대가 민주화를 주도했다. 이 두 업적을 70년 안에 이뤄냈다. 사상 유례없는 이 결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화두는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해 세대 교체,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어젠다(agenda)로 들고 나올 수 있는 담론 중 하나가 바로 '통일'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담론,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인수인계는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통일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빨리, 진지하게 들여다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이 기회조차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 아주통일연구소, 앞으로의 계획은? 아주대학교는 통일부 주관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경기 남부 통일교육센터 두 가지 사업에 동시에 선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또 BMW로부터 통일 관련 교육과 사업을 위해 3억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야심차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협력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자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틀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다시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아주통일연구소는 '통일 트랙'을 만들어 각 전공과 실질적으로 접목된 통일 교육을 펼쳐가려 한다. 이를 위해 공과대학, 의과대학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의 교수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교과목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jou Quarterly Magazine 2017 Summer Vol.20

### 통일이야말로 구체적 계획·실행 중요 ‘당사자들의 통일외지’ 주변국 알아야

지난 2005년, BMW 그룹은 옛 동독지역인 라이프치히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2001년부터 기획해 총 130억유로가 투자된 라이프치히 공장은 미래 이동성을 표방하는BMW를 생산하는 핵심 공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의 중요한 의미는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이 경제적인 격차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통합의 길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일은 통일 이후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제1의 경제대국,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선두 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거듭 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통일입니다. 그러나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국민 개개인부터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기업은 진정한 통합과 번영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정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지와 계획을 주변국들이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통일 한국이 결코 주변국들의 안보나 경제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주대학교가 통일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걸음을 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향한 뚜렷한 목표의식 아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갑시다.

### 일상에서 통일 후 삶까지 통일에도 창의적 도전과 사회변화에 대한 기여 담길

흔히들 통일을 정치나 경제적 이해를 따져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정신적 가치와 역사, 근본을 생각하며 시대적 사명을 갖고 접근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이 결코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통일 친화적인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이 통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통일 후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통일 교육도 절실합니다.

대학의 사회변화에 대한 기여와 남북접경의 경기도 대표대학으로서의 통일시대에 대한 준비를 위해 아주대학교가 ‘통일연구소’를 출범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72년의 긴 시간만큼이나 분단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힘이 안팎으로 커져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계속될 미래를 생각하면 72년도 참나적 순간일 따름입니다. 관심을 펼쳐내고 통일 한국을 향한 열린 마음의 창의적 도전, 이론과 현상이 만나는 체계적 도전을 아주대학교가 앞장 서 펼쳐가주시길 기대합니다.

### 어느 정부도 지키겠다는 ‘30년짜리 통일 계획’ 있어야 접경지 통일특구 조성할 것

북핵 위기와 평화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갈라진 우리 내부를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열고, 통일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도록, 30년짜리 계획을 만들어 한반도에 제시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 통일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통일에 대해서도 좋은 해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남북 경색을 풀 실마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는 중심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하여 문화와 경제, 정치 교류의 순으로 나아가길 예정입니다. 남북관계의 냉각기에도 불구하고 남북 접경지역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던 경기도는 통일경제특구를 설립해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 및 물류단지라 될 것입니다.

### 중국의 ‘일대일로’ 한국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전략적 연결돼 ‘두만강’ 평화·번영 역할 클 것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3년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죠.

중국의 움직임은 러시아의 원동(시베리아 동쪽 끝) 개발 계획과 그 맥락을 같이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북한의 개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한국의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국제 무역 질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지정학적·문화적 인연도 많지요. 하지만 아직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국·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북의 두만강 지역이 그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 여러 국가의 접촉 지대로 특수성과 국제성을 가지고 있어서죠. 두만강 지역을 필두로 경제협력이 구체화 되고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 간 협력에서 메콩강이 차지하는 의미만큼이나 동북아 국가 간 협력에서 두만강의 역할은 클 것입니다. 동북아 국가들의 시선이 두만강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이 글은 지난 6월 10일 아주통일연구소의 제 2차 중국학자 초청 전문가 세미나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 게재하였습니다.

### 독일 통일 아직 ‘진행중’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 봐야 ‘견고한 희망’ 다가와

독일 통일에서 태어난 저는 자라는 동안 단 한번도, 모국을 ‘한때 분단되었던 나라’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18세가 되어 투표권이 생기고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통일이 아직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갈라졌던 독일의 동쪽과 서쪽은, 서로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실업률, 임금 수준, 평균 수명, 출산율, 종교... 20년의 분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격차는 통일 이후 25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완전히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양쪽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가 걸은 길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며 서로가 진정 원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 보다는 서로의 비슷한 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유했던 시간, 그리고 공유하지 못했던 시간을 넘어 이제 통일된 우리의 앞에는 그 어느 때 보다 견고한 희망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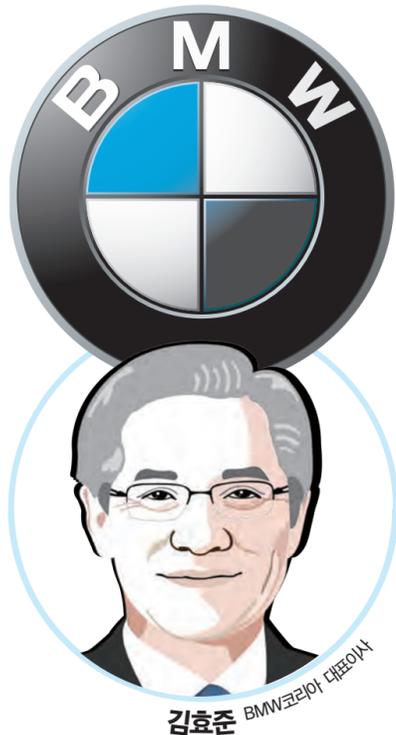
### 통일은 “잘 잤니?”하며 안부 묻듯 하는 일 돼야 새터민 관심도 통일운동

통일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본디 하나였던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나눠졌던 한반도를 원래대로 잇는 일이 바로 통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아주 소박합니다. 부모 형제가 만나 “잘 잤니, 잘 있니?”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길이 바로 통일입니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미워하는, 지난 70여년의 불행을 끝내는 길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여러분의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이웃에서 만나는 새터민들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독려해주는 것, 이게 바로 통일 준비의 하나라는 이야기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④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미국의 패션 유행을 정복하겠다**

정규윤 경영 10

이번 여름 "AFTER YOU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으로 떠납니다. 4주간 머무르면서 영어 집중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2주 정도 미국 여행을 여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시카고 등을 돌며 미국의 패션 유행에 대해 둘러보려고요. 저는 패션 MD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거든요!

**성공·실패·성취·좌절의 수확일!**

최수영 교수/수학과

올 여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 한국 대표팀 부단장으로 참여합니다. IMO는 각 국별로 6명씩 출전하며 이틀에 걸쳐 문제를 풀고, 참가자 점수를 합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그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1년간 무려 7번의 공식 선발 대회와 오랜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성공과 실패, 성취와 좌절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하면서 수학의 참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한국팀의 부단장으로 대표 선발과 대회 준비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한국팀의 성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점수 몇 개보다 어린 나이에 자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학에 열중한 학생들의 열정이 아닐까 합니다. 뜨거운 브라질의 열정만큼, 우리 대표팀도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아주의 여름프로그램에 동행~!**

목경훈 미디어 12

저는 유쾌한 반란 글로벌 인턴십에 선발되어 미국개발은행(IDB)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이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진행되지만, 평소와는 조금 다른 여름을 보내게 될 것 같은 워싱턴 D.C.는 처음인데도, 주말을 이용해 짬짬이 주변 박물관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 국립 항공우주 박물관, 국립 미국사 박물관 등 박물관이 굉장히 잘 되어있거든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널찍한 박물관에서 여러 작품을 관람하는 여유 학습 활동도 아주대학교의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서 여러 문화를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무탈하시고,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요~!

**도전, 인생의 꿈 미식축구 한 판!**

조민규 직원/프로젝트지원팀

어릴 적, 한 뮤지컬비디오에서 20대 청년들이 한껏 흥을 돋우며 자랑하며 해변에서 미식축구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라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멋져 보였는지 지금까지도 정한데는 그 장면이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으로 NFL(전미 미식축구 연맹) 공인구를 구입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를 영입해 공 던지는 연습도 끝마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휴재는 완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올 여름 20대가 끝나기 전에 하얀 모래가 그대로 바치는 아름다운 해변가를 배경으로 미식축구 한 판 꼭 하고 싶습니다.

**도서관과 떡볶이에 들인 합니다.**

호정화 교수/사회학과

문득 '여름방학'하면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 하얀 여름 햇살 또는 초록이 넘실거리는 조용한 계곡이 떠올리는데, 저는 그게... 도서관! 떡볶이 약해서 햇볕을 받으면 쉽게 땀을 흘리고, 모기에도 잘 물리는데다 심하게 부들부들거든요. 그래서 바다나 산으로 떠나기 보다는 햇살과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도서관에서 서울경기지역 여행객자를 하나 대출했습니다. 매우 한 곳씩 당일 여행을 가려고요. 지난 겨울 시작했던 '서울 10대 떡볶이집 투어'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아주 여름 프로그램

# WORLD WIDE AJOU SUMMER PROGRAM 2017

아주의 정신을 세계로 - 세계의 지혜를 아주로 -

"AFTER YOU" 프로그램 2017 여름 아주 글로벌 캠퍼스

## "그 친구를 보내자!" "그 친구를 맞이하자!"

꿈과 의지는 높으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의 후원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AFTER YOU"는 아주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 젊은이들과도 교류를 나누며 세계로 뻗어나갈 이 때 세계의 젊은이들도 그 가치를 배우어 아주로 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배려 - "AFTER YOU"가 여러분의 동행을 기다립니다. "나보다 더 먼저"가 더 커지는 세상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031 219 2171-2

OUTBOUND 아주의 정신을 세계로, 세계의 지혜를 아주로 - 아시아 10개국 17개 대학에서 선발된 29명 학생의 후원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INBOUND 도을 방문 나라에서, 도을 주는 나라로 - 아시아 10개국 17개 대학에서 선발된 29명 학생의 후원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iversity of Michigan</li> <li>University of Washington</li> <li>Johns Hopkins University</li> <li>Shanghai Jiaotong University</li> <li>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li> <li>University of Patutara</li> <li>Shanghai Institute of Technology</li> <li>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li> <li>University of Indonesia</li> <li>Flinders Institute of Technology</li> <li>KUMEP University</li> <li>Universiti Sains Malaysia</li> <li>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sanbeater</li> <li>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li> <li>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li> <li>Eksest University</li> <li>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emocracy</li> <li>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li> <li>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li> <li>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at Ho Chi Minh City</li> </ul>
---	--

설명회: 4.4.3 18:00 다산관 대강당 / 신청기간: 4.4.3~4.16.3

AFTER YOU 프로그램

"AFTER YOU 프로그램- 2017 여름 아주 글로벌 캠퍼스"가 미국과 중국 5개 대학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대가 여러 어려움 탓에 해외 경험을 쌓기 어려웠던 학생들을 위해 2015년 여름 시작했다. 올해에는 총 120명의 학생이 미국 미시간대학, 워싱턴대학, 존스홉킨스대학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북경공업대학으로 떠난다. 인근 지역 타 대학 학생들도 함께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 선발 시 꿈과 의지를 기준으로 하며 영어와 학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학생 파견을 위한 재원은 전액 내·외부 기부를 통해 마련해왔다. 한편 올 여름에는 "인바운드 AFTER YOU 프로그램"이 개막한다. 아시아 10개국 17개 대학에서 선발된 29명의 학생들이 7월10일부터 한달 동안 아주대 캠퍼스에 머물며 한국어를 익히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계획.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형편이 어렵지만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최종 선발됐다.



**Global Internship**

유쾌한 반란 글로벌 인턴십

아주대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의 문화와 실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올 여름에도 세계 각국에서 이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 BMW, 미국 최대 한인 회계법인 KCP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KOTRA 무역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소속 기업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에는 인도네시아대학과 아주대학교가 함께 하는 <UI CREATES>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대학에서의 3주 연수, 현지 인턴십 4주로 구성된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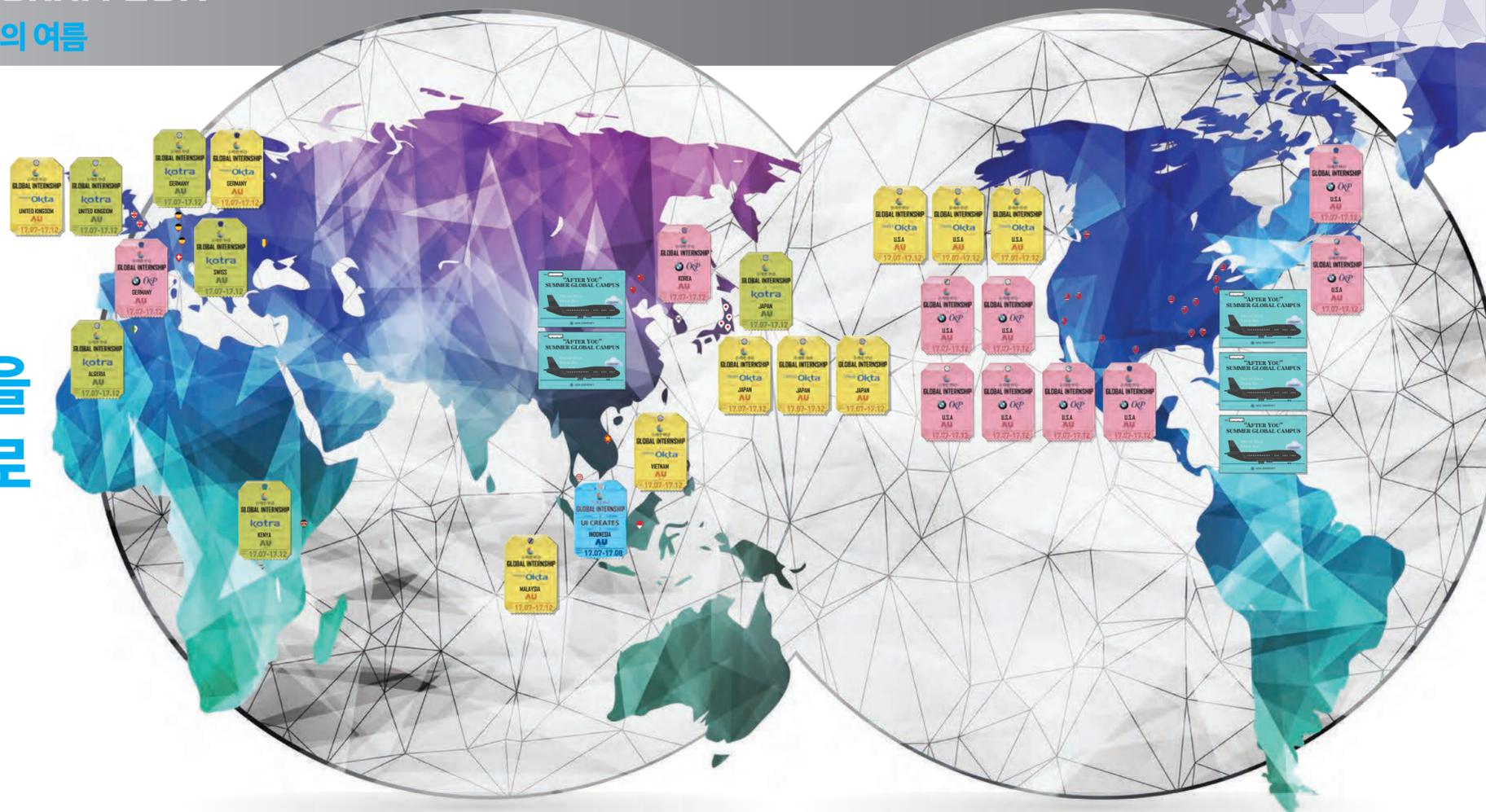
Ajou Quarterly Magazine 2017 Summer Vol.20

# WORLDWIDE AJOU SUMMER PROGRAM 2017

세계로 뻗어가는 아주의 여름

## 아주의 정신을 세계로

## 세계의 지혜를 아주로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jou Quarterly Magazine | 2017 Summer Vol.20



OUTBOUND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2017.7.10일 ~ 8.4일 / 4\*

미시간대학교  
미국 공립대학 4위  
세계 대학 21위  
집중 영어수업(주20시간)+현지 대학생 버디와 언어실습(주8시간)  
수준별 2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현장학습, 실습과제 수행)  
가계근로 학생 30명(아주대상+타교생) 편성가능

INBOUND



###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Cambodia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Mongolia



### University of Puthisastra

Cambodia



###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Mongolia



###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shington

2017.7.17일 ~ 8.11일 / 4\*

워싱턴대학교  
미국 공립대학 16위  
세계 대학 25위  
집중 영어수업(주15시간) 3주+자유여행 1주  
외국인 학생들과 수준별 반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주2회)  
가계근로 학생 30명(아주대상+타교생) 편성가능



###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China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China



### Bilkent University

Turkey



###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Washington D.C.

2017.7.10일 ~ 8.4일 / 4\*

존스홉킨스대학교  
미국 대학 10위  
세계 대학 17위  
집중 영어수업(주15시간)+현지 대학원생 버디와 언어실습  
수준별 2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국제대학원(SAIS) 주관 미국문화 및 국제관계 영어집중교육  
(이정부가인 및 국제기구 방문)  
20명(아주대상) 편성가능



###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hina



###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Uzbekistan



###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2017.7.31일 ~ 7.28일 / 4\*

상해교통대학교  
중국 대학 6위  
집중 중국어수업(주15시간) + 현지 대학생 버디와 언어실습  
외국인 학생들의 수준별 반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중국문화 실습(시예 중국회화, 태극권, 무술)  
가계근로 학생 20명(아주대상+타교생) 편성가능



### University of Indonesia

Indonesia



###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Indonesia



### KIMEP University

Kazakhstan



###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 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at Ho Chi Minh City

Vietnam



###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ietnam



###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Vietnam



CKP(Choi, Kim & Park 회계법인) 미국 지사 8주 근무  
BMW 6개월 근무



독일, 영국, 스위스, 일본, 알제리, 케냐 소재 KOTRA 해외 무역관 근무  
4개월~6개월 파견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소속 기업으로 파견: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독일, 일본 등  
2~6개월 근무(기업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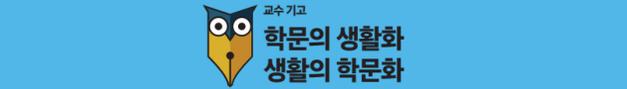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3주 연수: 인도네시아대학(University of Indonesia)에서 국제관계, 조직행동 등 수강  
4주 인턴십: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 현지 기업에서 근무

우리에게는 흔히 '권력구조라고 알려져 있지만, 학술적인 용어로 '정부형태의 분류'에 해당하는 대통령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혹은 이원정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때 이른 5월에 장미대선을 치르게 된 연유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따른 것이고, 다시 그 이유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과 반성에 의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부 형태의 개헌에 대한 의제는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크게 두드러지지지는 못했지만, 개헌 자체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요 후보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가. 물론 어떤 방향으로의 개헌이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속내가 달랐겠지만 말이다. 공약(公約)이 될지, 공약(空約)이 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필자는 개헌의 성공 여부를 떠나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는 물론 그나마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아직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릇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다. 그래서 이 지면을 빌어 대통령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자 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먼저 가장 생소하고 그러하기에 가장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보자. 대통령이 외정을 담당하고, 수상 혹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따라 나오는 설명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 정책 영역을 나누어 각각 관장한다는 의미에서 달리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혹은 이원정부제로 불리기도 한다는 친절한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로 인해 정부 형태 개편 이슈가 나온 상황이기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렇게 총리와 나눈다는 것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정부 형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 통상의 문제는 대통령이 담당해야 하나 총리가 담당해야 하나?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에서 통일·안보 문제는 누가 담당해야 할까? 미세먼지 대책은? 내·외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외정과 내정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은 누구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정부 형태가 실제 도입된다면 대통령과 총리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때마다 서로 담당하겠다고, 혹은 서로 미루느라고 허구한 날 다툰 것이 분명하다.

내·외정을 구분한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라면 분권형 대통령제는 실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아니다.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정부 형태, 즉 국민의 보편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의 신인에 의존하는 수상이 공존하는 정부 형태는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 운영방식이 우리의 이해와는 맞지 않을 뿐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정부제라는 이름은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먼저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대통령제를 영어로 'presidentialism'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각제는 영어로 무엇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순간이나마 당혹감



# 대통령제? 내각제? 분권형? '용어' 속 '내용'의 무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안 국민투표 붙이자는데 ...

**강신구**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와 나눈다는 얘기,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용어가 소개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오해는 통일·안보·통상 등 내·외정의 쟁점 마다

책임과 미륵의 다툼으로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단순한 하나의 원칙에서부터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을 느꼈을 것이며, 나중에는 고개를 가우뚱 했을지 모르겠다. 필자 역시 그랬으니까 말이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필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유학을 가기 전 짧게 유럽여행을 갔었다. 거기에서 한 중년의 네덜란드 부인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쩌다 미국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그 때 필자는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를 연구하고 싶다"고 말하고자 했다. 하지만 바로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각제라는 단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다. 직역으로 'cabinet system'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했지만, 아무래도 익숙치가 않아서 주저하다가 한참 후에야 책에서 내각제를 'parliamentarism'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떠올렸고, 그때부터는 대통령제는 presidentialism인데, 왜 내각제는 parliamentarism이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기억이 난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대통령제와 구별되는 유럽 국가들의 정부형태를 내각제가 아닌 parliamentarism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둘이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것은 'parliament'라는 단어가 민주주의의 정체(政體)의 필수 구성요소로서의 '의회(assembly)'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의 수반(head of government)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의회(parliament)'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 presidentialism과 parliamentarism이라는 정부형태는 "누가 정부의 수반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정부의 수반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수반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며, 의회제(parliamentarism) 국가에서 정부의 수반은 내각을 이끄는 수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수반이 누구고 어떻게 불리느냐가 아니라, 이들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제'는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제외하고) 본인 즉,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 밖에 없다. 그렇다면 탄핵은 무엇인가?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장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그 최종적인 판단의 책임을 맡겼던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결의 준거로 삼은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행위가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통령제다. 이에 반해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수상과 내각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의회가 결의하는 경우 물러나야만 한다. 이때 법의 위반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 의해서도 의회는 수상과 내각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통치의 권한이 시민으로부터 시민의 대표자에게 위임되고,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가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온전하게 질 때, 기대한 바와 같이 운영될 수 있다. 'parliamentarism(의회제)'라는 표현은 이들 국가에서 발견되는 권한의 위임과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내각제라는 표현은 주객(主客)과 본말(本末)의 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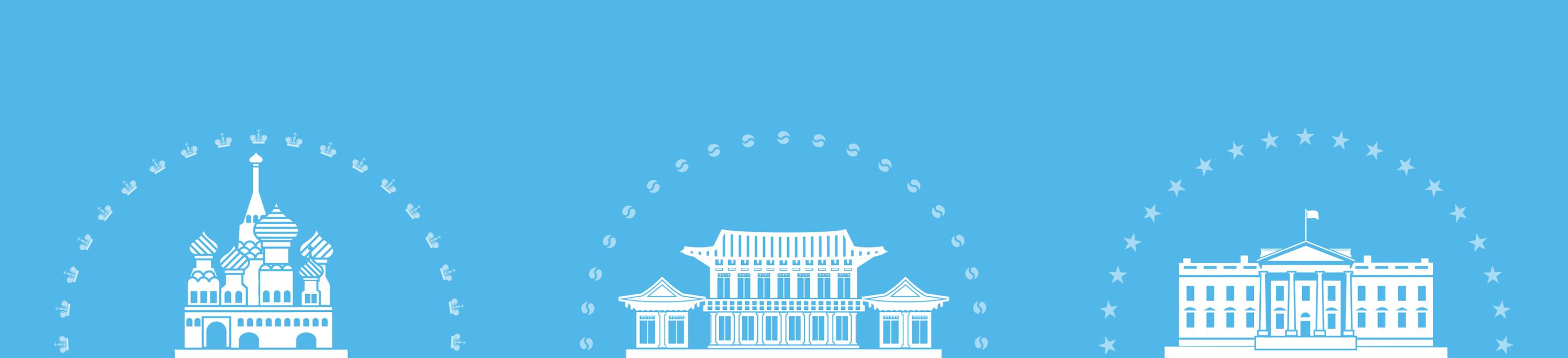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부를 구성하고 해체하는 역할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있고, 다시 대통령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다. 의회제에서는 그러

한 역할이 의회에 의해서 수행되며, 역시 의회는 시민들에게 평가 받는다. 그렇다면 정부를 구성하고 해체하는 역할이 대통령과 의회에게 나누어져 공유되는 체제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이것이 바로 실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며, 보다 널리 쓰이는 학문적 용어로는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정부 형태이다.

'semi'는 절반(half) 혹은 그렇기에 부분(partial), 온전치 않은(incomplete)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로부터 유래된 접두어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준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번역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의역(意譯)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용어가 소개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덧붙여져 현실에서의 작동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체제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준대통령제에서 수상은 대통령과 더불어 내·외정으로 권력을 양분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가 더 정확히는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권력을 분할하는 협상의 결과이다. 즉 준대통령제 정부 운영의 핵심은 대통령과 수상이 어떻게 권력을 나누느냐가 아니라, '누가 수상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달리 말하면, 준대통령제에서는 보편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오직 수상을 통해서만 통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상은 상시적으로 의회에 의해 해임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대통령과 의회의 협상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상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운영의 양상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대통령이 그 정당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이때의 수상은 대통령의 의지를 충실히 실행하는 참모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이때의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아울러 가지는, 현행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에 대립하는 세력(정당)이 의회 과반수를 통제한다면, 이때의 대통령은 현대 의회제의 군주가 수행하는 형식적 국가수반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정당도, 대통령에 대립하는 정당도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에만 의미 있는 정책 타협과 협상을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를 대표하는 수상이 외정과 내정을 담당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협상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때에도 외정이라 해서 오직 대통령의 뜻대로, 내정이라 해서 오직 수상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외정 모든 정책영역에서 대통령과 의회 정당들이 타협한 결과가 수상을 통해서 실행될 것이다.

준대통령제의 운영 양상에 대한 이와 같은 예상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헌법 개정의 순간에 우리가 정부 형태의 선택과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할 내용들의 무게를 보여준다. 기실 대통령제와 (우리가 내각제라고 그릇되게 부르고 있는) 의회제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수반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매우 단순한 하나의 원칙에 의해 구분된다. 그러하기에 선거제도나 선출된 대표자의 권한 배분과 같은 다른 수준의 제도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결합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다수제적인 의회선거제도와 결합한 영국의 의회제와, 비례대표제를 의회선거제도로 가지는 독일 및 유럽대륙의 의회제는 매우 다르게 운영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통령제와 그 동안의 한국 대통령제 역시 크게 다르다. 대통령제냐, 의회제냐, 준대통령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제, 어떤 의회제, 어떤 준대통령제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문화적인 요소의 결합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다. ●



전공 소개 나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 국문학과

# 세상은 책 읽는 사람과 책 읽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 박재연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국어학과 국문학을 배웁니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배운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공부합니다. 국문학 분야에서는 '문학' 시간에 배운 '시, 소설, 수필, 희곡, 비평' 등의 문학 작품과 문학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국어학 적성과 국문학 적성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어에 소질과 흥미가 있는 학생이 문학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학을 사랑하지만 문법이라면 질색이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만 좋아해도 국어국문학과에 올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소개하는 인재상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의 나열이어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문과가 내 적성에 맞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지 O, X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 제한두 개만 해당 사항이 있어야 국문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 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일단 설레는 사람(책 읽기뿐 아니라, 쓰다듬고 냄새 맡고 꽃아 놓고 쳐다보는 것도 좋은 사람)
- ② 무엇이든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글쓰기 수상 실적과 무관, 종이와 펜만으로도 심심하지 않는 사람)
- ③ 대화의 숨은 뜻, 행간의 의미를 잘 짚어내고 또 그런 것을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 ④ 다른 사람의 말과 글에서 나도 모르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속으로 자동교정기를 돌리는 사람
- ⑤ 무작정 시, 소설, 영화, 드라마가 좋은 사람

국어국문학과 교과목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현대 문학, 고전 문학, 국어학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기본 교과목들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응용 교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교과목에서는 정통 국어국문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중시하여 기초를 탄탄히 합니다. 응용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합니다.

특히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응용 교과목 중에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인문학과 디지털과학의 접목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의 과목(디지털 휴머니티 이해, 디지털 시대의 문화 비평, 한국 문화와 문화콘텐츠, 빅데이터와 문학텍스트 등) ▲고강도 의사소통 훈련을 목표로 하는 과목(한글과 국어생활, 화법과 방송언어, 감성텍스트와 표현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내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산학협력전공실습, 방언과 사회 등) 등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령 2016년 2학기 산학협력전공실습 강에서는 팀 활동을 통해 수강생 전원이 책의 기획, 집필, 편집, 디자인,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3권의 저서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독특한 관계와 전공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애정도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국어국문학과의 자랑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대하듯 격의 없이 선생님들을 만나러 와 크고 작은 문제를 상의하고 졸업 후에도 잊지 않고 후배들을 찾아옵니다. 작년 가을 인문대학 진로 페스티벌에 졸업생들을 멘토로 초청하기 위해 10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 와 주었던 것은 저에게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든 국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국어국문학과 4년을 다이면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글이든 수월하게 써 내는 사람이 됩니다(단 문학 작품을 쓰는 재능은 타고 나는 부분이 큼). 의사소통 능력 중 가장 갖기 어려운 것이 글 쓰기 능력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능력인지는 사회에 진출해 본 선배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고급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것만으로도 국어국문학과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의 진로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나뉩니다. 전공과목에서 두루 우수한 성적을 내는 소위 범용인 우등생들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후 교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국문학의 특정 분야나 문화콘텐츠,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같은 응용 분야에 강한 흥미를 느낀 학생들은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합니다. 책이 좋은 학생들은 출판 계통에 진출하여 책을 만들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재능과 꿈을 살려 시인이나 소설가로 등단한 졸업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문사나 잡지사, 방송국에 취업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설명과 설득의 의사소통 능력이 선패를 좌우하는 홍보나 마케팅 직종도 우리 국문과 학생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입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콘텐츠로 삼아 게임콘텐츠 분야에 진출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도 국문과 공부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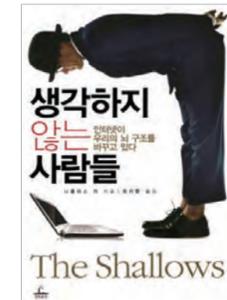
국어국문학, 혹은 인문학 공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사람과 책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끼 밥을 먹듯 매일 매일의 책 읽기로 생각 주머니를 넓혀서 주제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 혹은 남들이 말하는 것을 그르거나 보다 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생각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문과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책 읽는 사람, 생각당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깊게 생각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목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멋진 물건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멋진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 식으로 말하면 '소유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의 인간'으로서의 풍요입니다.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의 길이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두텁고 깊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인간과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맛보며 주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 인문학 교육의 목적입니다.

### ● 국문학과와 전공 지망생을 위한 박재연 교수의 추천서

세상의 모든 책은 장점과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 저에게 곤혹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국어국문학은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중 한두 권을 추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생각하는 사람, 인문학도로 살기'와 관련하여, 국어국문학 분야 바깥에 있는 책 두 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책은 매체의 변화가 인간의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판적으로 서술합니다. 월터 움브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와 같은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논지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인간은 생각하지 않는 '얕박한' 인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이 책의 원제는 'The shallows'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언어의 역사와 함께한다면 문명의 역사는 문자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문자라는 새로운 매체의 발명으로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문자 언어 덕분에 인간은 심층적이고도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이후 라디오, TV 등의 전자 매체의 발달로 인간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 자동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인간은 과연 행복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 이 책의 문제 제기입니다.

일찍이 맥루한은 '우리의 도구는 이 도구가 그 기능을 증폭시키는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결국 마비시키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손빨래를 하하던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에 비하면 세탁기를 돌리는 제 팔 힘은 당연히 약합니다. 우리는 원래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메모리 기억하고 지도책만으로도 낯선 곳을 찾아가고 뒷거울만으로도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과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근력, 단순 기억력, 공간지각력 등의 저하뿐 아니라 그동안의 과학 기술 발전으로 누리게 된 혜택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공 지능의 보편화로 '생각하는 일'조차 기계에 아웃소싱하는 시대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의 토막 정보에 익숙해져서 긴 호흡의 글을 읽지 못합니다. 사색을 친구 삼아 시간을 보내는 일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1-2분도 심심함을 참지 못하고 카톡을 보내고 게임을 하고 지나간 개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저자는 인터넷이 우리의 사색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감정의 깊이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하기를 멈추어도 우리는 계속 인간(호모 사피엔스)일 수 있을지요. 인문학도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신문명의 발목을 잡아야 할 때가 올 것이고, 이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일이 맞느냐고 묻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두터운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김영란, <책 읽기의 슬모>** 이 책은 창비 출판사에서 기획한 '공부의 시대' 시리즈 중의 하나입니다.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온 우리 시대의 지성들에게 우리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공부법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밝히고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저자는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전직 대법관입니다. 저는 저자가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높은 수준의 책 읽기를 해 온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전공 분야인 법학과는 상관없는 문학 독서를 주로 오랫동안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서는 '쓸모없는 독서'였지만 이 쓸모없는 독서에도 평평히 쓸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판결은 보편적 정의, 보편적 기준을 대입하는 행위이지만 인간의 개별성을 다루는 것은 문학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개별성과 다채로움을 많이 되게 그럴 수 있는 것은 문학 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한국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 당시 광범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윤용길, 박원서의 소설을 통해서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개별성을 놓치지 않아야 비로소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문학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출판사에서 부피를 줄이고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150면을 넘지 못한 순바탕만 한 책입니다만 이 책은 저에게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동적인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삼십년의 공직 생활을 떠난 지금 자신의 말년의 양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자문하고 '오직 읽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책을 끝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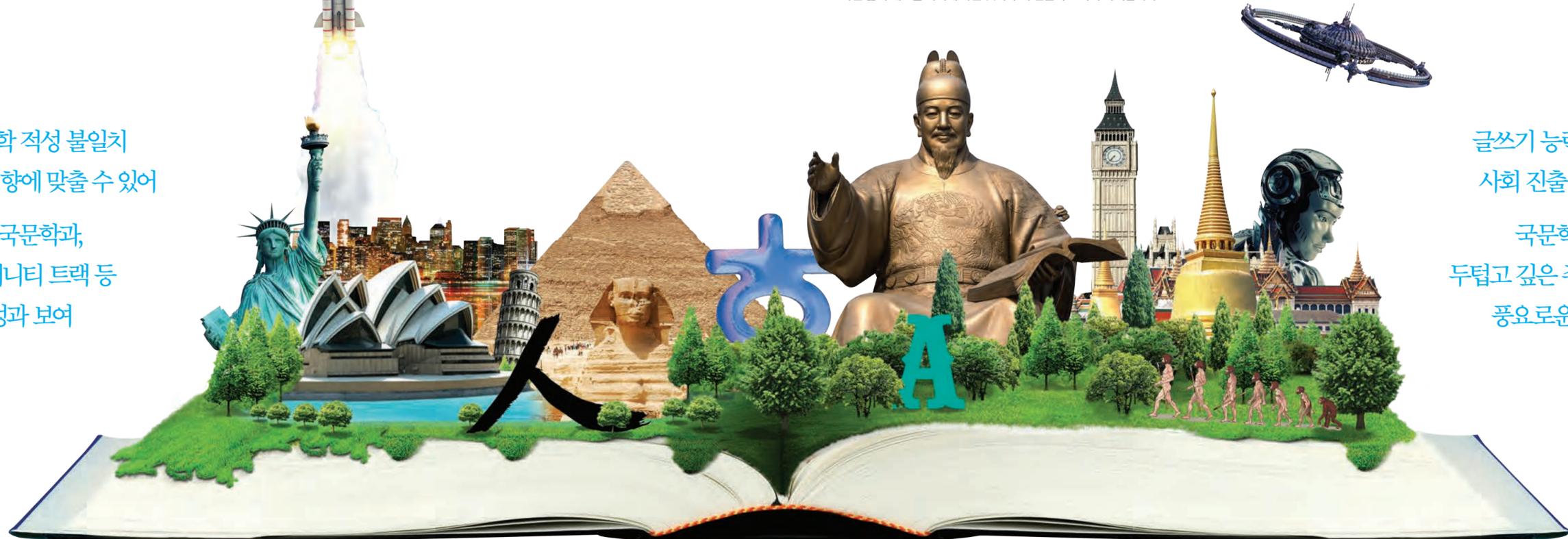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국어학·국문학 적성 불일치  
선택수강으로 성향에 맞출 수 있어

아주대 국문학과,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 등  
높은 성과 보여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  
사회 진출 즉시 알아

국문학 전공  
두텁고 깊은 주제적 사고의  
풍요로운 삶 도와



‘취업 전쟁’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일 정도로 구직이 어려운 시대다. 그 높은 벽을 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열과 성을 다해 외국어 공부를 하고 각종 스펙을 쌓아가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과 ‘직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해볼 기회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아주인사이드>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직지만 강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 지난 호 동우회원캠-안경현 동문(화학공학과 06)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첨단 정밀 화학제품 기업인 미원상사에 몸담고 있는 김재호 동문을 만났다.

● 회사 및 본인이 맡은 직무에 대해 소개해 달라.

2015년에 미원상사에 입사했다. 우리 회사는 여러 첨단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생활용품과 화장품, 전자재료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연구개발해 공급한다. 그 중 QA/QC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생산팀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들이 여러 규격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지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올바르게 제품이 출고·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회사를 자랑해 달라.

사람을 아끼주는 기업이다.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써준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경영진이 구성원들을 잘 챙긴다.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마련해주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준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 하나하나 챙겨준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더불어 업무 강도와 급여 수준이 만족스럽다. 퇴근 후 취미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많다.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 회사 동료들과도 저절로 교류가 되어 좋다.

● 강소기업 vs 대기업, 이렇게 본다.

급여로만 따지면 대기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러나 그만큼 업무 부담도 많다고 생각한다. 직원의 수가 많고, 이 인원이 각자의 파트를 맡아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대기업이다. 하지만 강소기업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주로 맡는 업무는

Ajou Location Premium ⑤  
강소기업으로 가자!  
**MIWON** COMMERCIAL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기업으로 가라!

**MIWON** 김재호 화학 08



정해져 있지만, 한 명의 직원이 그 일만을 하기 보다는 보통 2~3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게 된다. 언뜻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직원 개개인으로서의 다방면의 능력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업하며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 대학 시절과 지금, 회사와 직장생활에 대한 생각 어떻게 달라졌나?

취업을 준비할 때, 그리고 막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무슨 일을 맡아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차 있었다. 그런데 입사한 지 2년쯤이 지난 지금은, 처음부터 너무 불같이 일 하면 쉽게 방전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권태기를 겪게 되는데, 이를 이겨내지 못해 퇴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꼭 참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 시기의 차이,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직장 생활이란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대학을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하며 많은 노력을 쌓아왔다고 생각하지만 20대 중후반의 신입사원들은 직장 선배들이 보기에는 그저 고만고만한 새내기일 것이다. 동료, 선배들과 잘 어울리고 배우며 인생을 소소하게 즐기고 싶다.

●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정말 절실한 자신만의 꿈이 있어서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응원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 값' 때문에 대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말리고 싶다. 간판만을 보고 취직한다면, 행복은 입사 직후 잠깐 뿐이다. 매일 매일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업무에 대한 애정이 없는 금방 지쳐버리게 된다. 함께 입사했던 수십 명의 동기들이 다 떠나고 몇 남아있지도 않아 외지할 곳이 없을 수도 있다. 주변에서 보는 나의 삶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싶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정보를 찾아봐라.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면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다. ●

1999년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적응이 어려웠던 '야생'이었습니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기도 했지만, 재수를 한 것에 대한 쓸데없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대학에 와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전혀 없었어. 그저 '다들 대학에 가니까 나도 되도록 좋은 대학에 가야지' 정도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후에는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진, '꿈도 희망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사치스런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대하고 난 뒤 처음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부였기에 관련 자격증을 준비해야겠다 마음먹었지만, 정작 해보니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였습니다. 또다시 방향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행정고시를 준비하러 한다고 말하더군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기에 공무원의 생활이 어떤지는 대강 알고 있었고, 당시의 경험이 나쁘지 않았기에 나도 한번 준비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던 중 학교에서 행정고시 준비반인 아현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척대고 신념으로 자기보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고 정보도 들은 후 가는 것이 준비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그곳에 들 어갔지요. 아현재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 지하에서 젊음을 불사르던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요.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사람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신념으로 올라갔습니다.

행정고시, 그러니까 5급 공채는 1차 PSAT, 2차 논술, 3차 면접을 거치는 시험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보통 1차는 2월 말, 2차는 6월 말, 3차는 11월에 보는 일정이었습니다. 한 해에 한번 있는 시험인 거죠. 유예가 없어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번 빠졌기만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떨어지면 최소 벌금 1000만원을 동반하는 1년짜리 독방형을 선고 받는 거라는 얘기도 있었죠. 저는 그런 벌금 더하기 독방형을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시험인데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계속 떨어지면서 점차 초조해지더군요. 한번 떨어지면 1년이 가고, 또 떨어지면 또 1년이 가는지라 한해 가는 것이 정말 빨랐습니다. 거기다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던 저는 점점 구석에 몰렸습니다. 가장 저를 괴롭혔던 것은, 흔한 얘기입니다만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나는 그야말로 잉여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때 저를 지탱해준 것이 우리 아현재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푸념도 나누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마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꾸역꾸역 버티가면서 계속한 결과 공부한지 5년이 넘은 2010년에 지역직으로 합격하면서 수험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32살이었으니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요. 그 이후 2011년 연수원에 들어가고 수습을 거치면서 현재 충남도청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도청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의 여러 교수님들과 중소기업인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은 통에 청년층의 취업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믿으세요”

‘낙방’과 ‘잉여의 괴로움’을 지탱해준 ‘아현재’ 시절 그리워

공직시험 준비에 전공의 독창적 풀이인 아주 교수진 강의 뛰어난 ‘노량진’은 보완재로



이영조  
경영 99 / 충남도청 신성장동료와 팀장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공직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등에 대한 매력에 커지면서 대학생들이 일찍부터 공무원이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몇 글자 씩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은 빨리 잡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공직은 특히 그렇습니다. 공직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선택하게 되는 상황은 부담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직을 준비하게 된다면,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기에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되도록 공직을 포기하더라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나이에 준비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안정감과 복지만을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생각과 다른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분들을 꽤 봤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진 상황에서 생각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공부를 시작했다면 합격목표는 되도록 단기간으로 잡으세요. 공무원 시험은 단거리에 가까운 중거리 달리기 같습니다. 적어도 마라톤은 아닌 것 같아요. 5급 공채라면 1차 시험이 끝나고 학원에서 3순환 강의가 시작되는 2월 이후는 스피트를 서서히 올려서 2차 시험 직전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은 전력질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보아야 할 책의 분량을 줄이고 단거리를 버릴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세 번째, 학교 수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교수님들은 해당 학문의 전문가들이시고, 출제를 하시는 분들도 교수님들이신지라 중시하는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급 공채에는 학원의 수업이 수험에 적합하긴 하지만, 학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는 쪽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서로가 훌륭한 보완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수험생활 동안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우리들은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익숙해지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불합격이 계속되면서 내가 너무 허황된 목표를 좇는 것은 아닌지,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채 생활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들도 할 수 없게 되더군요. 실사 남들이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이 합격할 수 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비단 수험뿐 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겠네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속할 거라는 결론이 섰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계속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는 것과 더불어 아주인답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겠지요. ●

# RESEARCH NEWS >>>



\*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용 이미지입니다.

## 암유발 단백질 제어하는 항체 개발

**김용성**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 ·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아주대 김용성 교수팀(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이 세포 안에 들어가 암 유발 단백질을 제어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했다. 이 성과를 통해 앞으로 암 치료를 위한 신약 항체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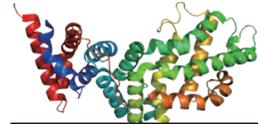
김용성 교수팀의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 5월10일자에 실렸다. 김 교수팀은 세포 내부의 종양 유발 라스(Ras) 돌연변이 단백질을 직접 표적해 **종양의 성장을 막는 치료용 항체 기술을 개발했다**.

라스 유전자 돌연변이는 가장 널리 알려진 종양 유발 인자다. 인간 종양의 약 30%에서 발견되고 특히 췌장암(95%), 대장암(52%)과 큰 관련이 있어 항암제 개발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스 돌연변이를 직접 표적하는 약물이 개발된 바가 없었다. 김 교수팀은 바로 이 라스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약물을 개발, 그동안 난공불락이었던 신약 항체 치료제 개발의 문을 열었다.

김용성 교수는 "기존의 치료용 항체는 세포 외부(막단백질, 분비단백질)만을 표적으로 할 수 있었다"며 "연구팀에서는 세포질로 직접 침투해 라스 돌연변이 단백질이 보내던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이 연구 결과로 2건의 국내 특허를 확보했고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융합융합기술과이노이아 사업의 지원이 바탕이 되었다.

한편 김용성 교수는 '세포 침투 간섭항체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난해 오름 테라퓨틱(대표이사 이승주)을 창업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앞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제품화되면 국내외 치료용 항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테라헤르츠 활용폭 넓힐 신소재 개발

**권오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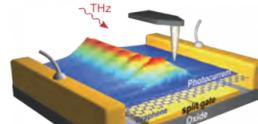
응용화학생명공학과 ·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권오필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가 고출력 광대역의 테라헤르츠파 광원 개발에 성공했다. 테라헤르츠파는 '몸의 전자파'로 불리는 전자파의 일종으로 기존의 광파나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권오필 교수와 이상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물리학과)는 **진동을 억제하는 분자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고출력 광대역의 테라헤르츠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원천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소재 분야 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매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4월11일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테라헤르츠파(THz)는 빛의 영역과 전파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며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띄는 독특한 전자파의 일종이다. 인체에 무해하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선택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의료와 보안, 환경,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다양한 테라헤르츠 광원 소재가 개발되어왔지만 대부분의 테라헤르츠 광원이 저출력에 광대역을 포괄하지 못해 분석할 수 있는 물질에 한계를 보여 왔다. 연구팀은 분자 간 진동을 억제할 유기소재를 활용, 테라헤르츠파 제흡수를 막는데 성공했다. 강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극성그룹을 테라헤르츠 광원소재의 음이온에 도입하여 그물의 매듭과 같은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분자 간 상호작용을 강하게 만들어 분자 간 진동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에 기존에 사용하던 테라헤르츠 광원 소재에 비해 20배 이상의 강도를 내는 광대역 테라헤르츠 스펙트럼을 얻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과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 염증성 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

**최상돈** 교수

생명과학과 ·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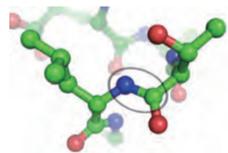


최상돈 교수(생명과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팀이 **스테로이드 대체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염증성 질환 치료 후보물질을 개발**했다. 최상돈 교수는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쓸 수 있는 펩타이드(peptide) 물질을 발견, 그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펩타이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인 아미노산이 2개 이상 연결된 상태의 물질이다. 이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세계적 학술지인 <바이오매터리얼스(Biomaterials)> 2월27일자에 게재**됐다.

우리 몸에 세균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톨-유사 수용체4(TLR4)라는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그런데 톨-유사 수용체4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폐혈증을 비롯한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대체물 쓰는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 골다공증, 저항력 약화나 쉽게 살이 찌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이에 최 교수팀은 톨-유사 수용체4가 보내는 신호를 차단하는 펩타이드 물질을 제작해 쥐와 사람의 세포를 대상으로 실험을 거쳤다. 그 중 효능을 보이는 3가지 물질을 발견했고,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쥐에게 이를 투여해 염증으로 인한 손상이 줄어들음을 확인했다.

최상돈 교수는 "펩타이드 물질은 약리작용이 강력함에도 제조와 품질 관리가 쉬워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며 "류마티스 관절염과 폐혈증, 자가면역질환 등 염증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교육부 중점연구소지원사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환극복기술개발(질병중심 중개기반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NEWS >>>



EVENT

## 파란학기제 성황리 마무리

### 김동연 경제부총리 · 남경필 지사 특별격려도

세 번째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17학년도 1학기 파란학기제에는 총 32개팀, 13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아주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도전하고, 이를 통해 자기 인생과 진로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감을 얻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파란학기제를 시작했다. 학생이 스스로 제안하는 학생설계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 이를 성실히 잘 수행한 경우 3-18학점의 정규 학점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인문, 문화 · 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제한 없이 도전 과제를 설계할 수 있고 학교나 교수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이를 수정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이번 1학기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된 파란학기제에는 총 34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학기 참여 학생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독거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안전 알림 디바이스 개발 ▲대학생 단편영화제 개최 ▲심리학 학습 게임 제작 ▲원터치 민원수용어플 제작 등의 과제에 도전했다. 세 번째 파란학기제 성과발표회는 6월3일 개최됐다. 시상식은 ▲이노베이션상 ▲파이오니어상 ▲파이릿상 ▲타닝포인트상 ▲시선집중상(특별상) ▲내일의주인공상 ▲제로부원상 ▲평균실과상 ▲홍콩한빛사공상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상금 2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진 홍콩한빛사공상의 영예는 올베미퍼치스팀에 돌아갔다. 올베미퍼치스는 영화 제작과 배급, 대학생 영화제 개최에도 전했다. 수상팀에게 주어진 상금은 한민업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계획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으로 학교를 떠난 김동연 전 총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함께 자리했다. 김 전 총장은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파란학기제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전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 오늘이 순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순간, 매 순간 행복을 누렸으면 한다"며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하는 아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학년도 1학기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 수성팀은 아래와 같다.

- ▲홍콩한빛사공상\_올베미퍼치스
- ▲평균실과상\_푸동
- ▲제로부원상\_파노라마
- ▲내일의주인공상\_사나무브로
- ▲타닝포인트상\_AMaDa, 프리덤
- ▲파이릿상\_NOISE, 블루오션
- ▲파이오니어상\_상상, 스무날비, 켈피어, 하얀지팡이, ESIA, SFACUP
- ▲이노베이션상\_save the africa, TT, 드루이라고, 드르니, 레몬, 스프링북, SIAO UNNIEZ, Superizer
- ▲시선집중상(특별상)\_블루오션



AWARD & SELECTION

## LINC+ 사업 선정 산학협력 선도 대학으로

### 김동연 경제부총리 · 남경필 지사 특별격려도

아주대가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LINC+는 2012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후속사업인 '포스트 링크'와 최근 신설된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사업'이 통합된 프로젝트다.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LINC+는 일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일반 대학 대상 산학협력 고도화형에는 권아별(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로 10개 학교씩 총 50개 학교가 선정됐다. 아주대는 수도권 대학들과 경쟁을 벌여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LINC+사업에 참여해온 아주대와 가톨릭대, 성균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에리카), 국민대, 동국대, 단국대와 신규 진입한 경희대, 고려대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주대는 그동안 LINC+사업을 통해 진행한 ▲중소기업 수출관로 개척 지원과 ▲취·창업에 비롯한 산학협력 교육의 도전적 확대 등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세부사업 전략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LINC+사업단은 지난 4월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월드 옥타(World-OKTA) 제19차 세계대학교대회'에 참가해 글로벌 산학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월드 옥타는 제의 동포 경제 단체로 73개국 145개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2만5000명의 기업인들을 회의로 두고 있다. 올해에는 한민업 경제네트워크 구주권·모국경제발전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 국내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학교는 LINC+ 사업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상생 협력의 윈윈을 전진 기사가 되었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월드 옥타와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연계형 비즈니스(원장실습-창업교육-기술사업화-기업·지역사회 지원)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 아주대학교 LINC+ 사업단 AJOU UNIV.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융합시스템공학과 출범, 재직자 전형 확대 운영키로

공과대학 산하에 융합시스템공학과가 신설되어 올 1학기 출범했다. 융합시스템공과과는 특성화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해 온 분들을 위해 마련된 학과 과정으로 올 1학기 첫 신입생 52명을 선발했다. 학교는 융합시스템공과과 신설을 위해 지난해 5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학과는 ▲최신 융합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실무 인력 양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산업 인력 양성 ▲글로벌 산업현장의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교는 앞으로 산업체 제작자를 위한 인력형성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018학년도에는 공과대학 융합시스템공과과뿐 아니라 경영대학 산하에도 학과를 신설해 총 106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EVENT

## 교내 푸드 트럭 오픈

캠퍼스 푸드 트럭 2대가 원천정보관 앞에 문을 열었다. 푸드 트럭은 '팝도둑'과 '아재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아주대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맡았다. LINC+사업단은 지난해 11월 푸드 트럭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2팀, 4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 학생들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관련 장비를 임대형식으로 지원받고, 학교에서는 사전 교육을 마련해 학생들의 창업을 도왔다.

학교는 푸드 트럭 사업을 통해 창업을 위한 문턱을 낮추고, 학생들이 창업 노하우를 습득해 실제 창업에 나서는 경우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 조성을 교수 저서 등 3권, '17 우수학술도서'



아주대 조성을 교수(사학과), 김봉철 교수(사학과), 김홍표 교수(약학과)의 저서와 역사가 대한민국 학술원 2017학년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 학문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 연구 및 저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한다. 학술원은 올해 총 73종의 책을 우수학술도서로 뽑았다.

이번에 선정된 책은 조성을 교수의 저서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살실야 과제 쟁점 그의 삶>과 김홍표 교수의 저서 <고교 사는 것의 생활학-임에서 향문까지, 소화가관으로 읽는 209년 생명 진화 이야기>다. 김봉철 교수가 번역한 <역사>도 우수학술도서로 뽑혔다.

조성을 교수는 다산 정약용 연구의 전문가로서 정약용의 생애를 재구성해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을 펴냈다. 다산의 저술과 서신, 실록과 승원일기 등의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다산의 일대기를 담았다. 김홍표 교수의 책 <고교 사는 것의 생활학>은 소화가관을 중심으로 209년의 생명 진화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단세포 생명체가 여러 종류의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기까지, 소화가관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써 낸 대중적 과학 도서다.

김봉철 교수가 번역 출간한 <역사>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저술한 서양 최초의 역사책으로, 기원전 그리스와 페르시아인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김 교수는 고대 그리스사 전문가로 7년 간 작업에 몰두하며 총 900쪽 분량의 책을 완성했다.

## "AFTER YOU"

큰 인제, 큰 사회

\* 아주대학교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프로그램 '에프티유'에 많은 도움·성원 바랍니다.

# NEWS >>>

## AWARD & SELECTION

### 김순태 교수, 대통령표창 수상



김순태(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환경부 주관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환경보전 유공자로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순태 교수는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이동현상 분석 및 대기오염 원인규명 ▲국내 대기 질 개선 정책 수립 기여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구축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대기오염은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대학이언이 시급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은 어렵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는 <생명과 환경가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날 국무총리,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환경단체, 관련 기업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유공자 포상 외에도 환경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경기도의회와 위탁교육 협약 체결



아주대와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은 지난 3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양 측은 ▲도의원 연수 ▲위탁교육을 통한 교육지원 ▲교과과정 및 교재 공동 개발 ▲도의원의 대학교육 참여 ▲학생들의 현장 실습 및 연수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총장은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의원들의 값진 경험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특강 형식으로 강의해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제언했다. 정기열 의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강화에 뜻을 같이해 준 아주대학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이종화 기계공학과 교수, '자동차의 날' 산업포장 수상



기계공학과 이종화 교수가 산업포상자문위원 주관 '제14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난 6월 15일 진행된 '자동차의 날' 행사에는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과 주행한 산업포상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화 교수를 비롯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33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이종화 교수는 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과 국내외 특허 개발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받았다.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해외 시장 개척과 핵심 부품 개발 등에 공을 세운 기업인 3명도 이 교수와 함께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종화 교수는 1982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MIT 객원 연구원, 현대자동차 선임 연구원을 거쳐 1993년부터 아주대 강단에 서었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아주자동차대학 제 5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 AWARD & SELECTION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아주대가 교육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선취업 후진학 모델을 확산하고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15개 대학을 선정, 23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주대는 수도권 지역, 학과형에 선정됐다. 아주대학교는 융합시스템공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등 기존 재직자 대상 학위과정 운영 실적이 우수한 점과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재직자 전용 모바일 학습 방송국 활용 계획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AWARD & SELECTION

### 신귀암 교수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선정, 4년간 최대 20억



신귀암(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연구과제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도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선정됐다.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자원을 지원해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 교수의 연구과제는 에티오피아에 '적정 과학기술 거점센터'를 설치해 물, 농업과 관련한 환경정보 기술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제의 총 사업기간은 4년으로 매년 5억원씩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신 교수는 "이번 연구가 에티오피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 >>>

## AWARD & SELECTION

### 서해영·박래웅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



서해영(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와 박래웅(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BIO KOREA 2017 유공자 포상식에서 각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서해영 교수는 고교을 형입가능성 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한미약품에 기술이전하고 임상 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치료제는 일반 항암제와 달리 전신독성이 없고, 암 표적 기능이 높아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탁월하다. 박래웅 교수는 한국오스템이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11개 대학병명과 보훈공단의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있고, 최근 2년 6개월 동안 150회 이상 강연을 하여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약산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박 교수가 진행하는 병원 임상자료 표준화가 완료되면 병원 연구자뿐 아니라 제약이나 기업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연구, 제약, 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다.

## AWARD & SELECTION

### 의대 채수진 교수, 한국의학교육학술상



의과대학인문사회의학교실 채수진 교수가 지난 6월 1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학회 제33차 의학교육 학술대회에서 연구부문 한국의학교육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국내 의학교육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최신 교육이론과 기법을 전파하기 위해 1995년 창립되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연구부문과 교육부문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의학교육자를 1명씩 선정하여 한국의학교육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채 교수는 2016년부터 한국의학교육학회(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에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의학교육 발전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PEOPLE

### 이범진 학장 개발 기술, 동화약품에 이전계약



신학력팀이 이범진 약학대학 학장의 구강봉쇄정 제제 기술을 동화약품에 이전하기로 하고 3월 7일 동화약품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구강봉쇄정이란 물 없이 입에서 녹여 먹는 약으로 노년이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들 많이 복용하는 형태의 약이다. 약물의 특성상 구강봉쇄정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범진 교수가 연구·개발한 고체분산체를 통한 제제 안정화 기술을 이용하면 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 동화약품은 이번 기술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약품을 구강봉쇄정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과 복용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됐다.

## PEOPLE

### 의대 박태준·김장희 교수팀, 노화중양세포 암전이 촉진 밝혀내



의과대학 박태준·김장희 교수 연구팀이 증식을 멈춘 늙은 암세포가 암의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관련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5월 10일자에 실렸다. 박태준(의과대학 생화학교실)·김장희(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갑상선 유두암에 있는 노화중양세포가 갑상선 암 세포의 이동을 촉진하고 주변 장기 조직을 공격, 전이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노화중양세포는 암에 존재하는 종양세포 중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고 다양한 분비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를 말한다. 노화는 종양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지는 것을 막고, 때문에 암이 진행되는 조직에서는 노화중양세포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암에서 발견되는 노화중양세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암에 존재하는 노화중양세포가 암의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했다"며 "노화중양세포와 노화 관련 분비표현형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 치료법과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DONATION

### 이종철 동문 1억 추가 기부,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이종철 장학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5월 15일 율곡관에서 열렸다. 총 8명의 장학생이 장학증서를 받았다. 이종철 기부자는 장학생 8명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해주며 격려했다. 이번 학기에 신소재공학과 갑다에 학생을 비롯해 8명의 학생이 이종철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들에게는 각각 25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종철 동문은 아주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43기 졸업생으로 앞서 장학금 3억원을 기부, 이종철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왔다. 이 동문은 이번엔 1억원을 추가로 쾌척했다. 이종철 동문은 이종철 장학금 이외에도 이경장학금과 'AFTER YOU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다. 2017학년도 1학기 이종철 장학생은 ▲갑다에(신소재공학과) ▲문자원(신소재공학과) ▲이준석(의학과) ▲최민주(의학과) ▲황수진(간호학과) ▲최수연(간호학과) ▲박규민(약학과) ▲이하리(약학과)다.

## EVENT

### 아경장학재단 10주년 기념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



아경장학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과 장학증서 수여식이 4월 11일 성호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아경장학재단 장학생들과 김형균 이상장을 비롯한 아경장학재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김동연 총장 및 아주대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행사는 10주년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 보고 ▲공로 및 감사패 전달 ▲장학증서 수여 ▲기념식사 ▲총장 축사로 이어졌다. 본 행사 후 성호관 앞 잔디밭에서는 축하케이크 커팅과 한계수 아경장학재단 초대 이사장 축사, 김진영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축사, 학생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2007년 설립한 아경장학재단은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에는 67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28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 '할일을 할 뿐' 교직원 마이크

# 잡으세요! 아주의 유쾌한 세계 진출 프로그램들!



### 김재은 과장 / 국제교류팀

2000년 아주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국제협력 실무직원으로 15년 재직하는 동안 국제화와 관련된 업무를 두루 담당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유쾌한 반란 글로벌 인턴십'의 실무를 맡아 해외 취·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호흡해왔다.

내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글로벌 인턴십에 꼭 도전해보고 싶다.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데 아직 그런 기회에 눈을 뜬 학생이 많지 않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전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두려움이라는 벽을 깨 주려 많이 노력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상태에서 글로벌 인턴십에 도전했던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온 뒤 한층 더 성장하고, 또 한번 다른 형태의 도전에 과감하게 뛰어들며 창업이나 취업에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다. 글로벌 인턴십에 도전할까 말까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무조건 경험해보라. 특히 해외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미리 그 나라를 겪어보는 게 필수다. 왜 가는지, 무엇을 얻어 올 것인지 생각하고도 생각해봐라. 그리고 고생할 각오를 해라. 도시적인 분위기의 세계적 유명세를 가진 회사만을 선호하지 마라. 확장시절에 접할 수 있는 사람과 문화, 경험을 돈 받으며 경험해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처음 아주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과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화 업무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다. 교환학생과 아학연수 등의 전통적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커리어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추가 옮겨 가고 있다. 우리 대학의 나아갈 길 중 하나는 국제화이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은 참 중요하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잇따라 선전

# 아주대, 로이터 '아시아혁신대학'서 9위에

아주대가 국내외 기관의 대학평가에서 잇따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지난 6월 8일 발표한 '2017년 로이터 아시아 혁신대학' 순위에서 아주대는 21위를 기록했다. 평가에 참여한 국내 대학 중에서는 9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세계 최대 뉴스 공급사인 로이터는 클라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 전 톰슨 로이터 지적재산 및 과학 사업부)와 공동으로 아시아 교육기관을 평가, 상위 75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각 대학의 특허 출원, 연구논문 인용 건수의 양과 영향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올해 로이터 아시아 혁신대학 순위에서는 카이스트(KAIST)가 1위를 차지했고 ▲서울대학교 ▲도쿄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칭화대학교 ▲도호쿠대학교 ▲교토대학교 ▲오사카대학교 ▲한양대학교가 뒤를 이었다.

상위 75개 아시아 대학에는 중국 대학(홍콩 포함) 25곳이 이름을 올렸고 한국(22개), 일본(19개), 호주(5개), 홍콩(4개), 싱가포르(2개), 인도(1개) 대학도 선전했다. 아주대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1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에서는 9위로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과대 ▲성균관대 등이 앞선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아주대는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2017 이공계 대학평가'에서 종합 1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종합 26위에 비해 큰 폭 상승한 결과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50개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 ▲연구의 질 ▲산학 및 기술 실용화 ▲창업 및 취업 ▲평판도를 지표로 평가했다. 아주대는 특히 창업 및 취업 지원 부문(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창업 강좌 이수 학생 비율)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 로이터 아시아 혁신대학, 한국 대학 순위

순위	대학교명	전체 순위	순위	대학교명	전체 순위
1	카이스트(KAIST)	1	11	이화여자대학교	42
2	서울대학교	2	12	전남대학교	51
3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4	13	인하대학교	54
4	성균관대학교	5	14	가톨릭대학교	55
5	한양대학교	10	15	경북대학교	56
6	연세대학교	14	16	부산대학교	58
7	고려대학교	15	17	전북대학교	60
8	광주과학기술원(GIST)	18	18	중앙대학교	64
9	아주대학교	21	19	건국대학교	68
10	경희대학교	23	20	울산대학교	69

## NEWS &gt;&gt;&gt;

## EVENT

##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 이전 기념식



경기남부해바라기 거점센터의 신축과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3월21일 열렸다. 신의진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과 여성가족부, 경기도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남부해바라기 거점센터는 아주대병원인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전문상담원, 경찰 등이 상주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그 동안 기능에 따라 병원과 주변 건물 3곳에 분산 운영되던 센터를 병인 내 단독건물로 통합해 운영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는 2009년 윈스플센터로 시작해 2014년 전국 36개 해바라기센터를 총괄하는 거점센터로 선정되었으며 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의료 지원, 법률지원을 윈스플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자 지원 표준모델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PEOPLE

## 박만규 인문대학장, 한국사전학회 신임 회장 선출



박만규(철이불문학파) 교수가 한국사전학회 제30차 전국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한국사전학회는 사전편찬과 사전화 발전을 위해 국어학과 외국어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모여 2002년 설립했으며 사전학연구를 영2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박만규 교수는 '아시아텍스와 유라텍스 같은 국제 사전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겠다'며 '사전학회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언어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학회의 역할을 도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PEOPLE

##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 행사 참여



몽골에서 열린 수원시민의 숲 조성 행사에 아주대 구성원들이 참여해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수원시민의 숲 조성은 몽골 사막 확산을 방지하고 황사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수원시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행사는 5월25일부터 29일까지 몽골 예르만수 지역에서 열렸다. 도태호 제2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인사 40명과 김홍식 공공정책대학원장을 비롯한 아주대학교 관계자 52명이 참여했다. 아주대에서는 김병관 사회과학대학 학장, 조재형 학생처장, 이영현 대학원원 상임이사과 공공정책대학원 재학생, 사회봉사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함께 했다. 수원시는 '수원시민의 숲' 조성 행사를 통해 매년 1만 그루씩의 나무를 10년 간 심어 1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체계적 조림지 관리를 위해 관수 시스템 역시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아주대 관계자들은 몽골 국제올림픽위원회대학을 방문해 도사와 학용품 등을 기증하고 양교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송주 몽골 대사의 초청으로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에도 방문했다.

## AWARD &amp; SELECTION

## 사이버보안학과 학생팀, 국제해킹방어대회 우승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학부생들이 '코드게이트 2017 국제해킹방어대회' 대학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코드게이트(Codegate) 2017은 미래정보과학부가 주최한 행사로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지혜가 보인의 해답을 줬다>라는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프리저에서 열렸다. 국제해킹방어대회는 일반부와 대학부, 주니어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아주대 학생들은 대학부에 참여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사이버보안학과 권혁주, 안재혁, 이시훈 학생과 소프트웨어학과 박정환 학생으로 구성된 '세컨드'팀이 0X414A4F55다. 사이버보안학과 홍민표 교수가 지도를 맡았다. 본선에서는 아주대 학생들과 포항공대, 카이스트, 고려대 등 10개 대학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실력을 겨뤘다. 최선 해킹 사례를 반영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졌다.

## PEOPLE

## 정경훈 교수, 한국비평이론학회 회장 선출



정경훈(영어영문학과) 교수가 한국비평이론학회 제10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비평이론학회는 문학, 예술, 문화의 비평 이론 연구와 실제 비평을 하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주축이 되어 1993년 설립됐다. 문화 비평계의 최고 권위자인 김우창, 이상식, 박찬부 교수 등이 역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전통 있는 학회다. 정경훈 교수는 "사회 제도의 준비를 위해 우리 인문학이 대면할 문제들을 국내외 연구자들과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DONATION

## 이택성·조철현·김민정 동문 기부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감사제 전달식이 5월29일 유곡관 총장실에서 열렸다. 기부자는 이택성 (주)삼광켄 대표(회공78), 조철현 변호사(로스쿨37), 김민정 변호사(로스쿨 37)이다. 이택성 동문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약정한 뒤 최근 1800만원을 기부했다. 앞서 이 동문이 대표로 있는 (주)삼광켄에서 일반대학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장학금으로 약 360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법률사무소 '요운'에서 함께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철현, 김민정 변호사도 '요운' 장학금이다. 이 이름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두 동문은 앞으로 매년 500만원씩 10년 동안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 AWARD &amp; SELECTION

## 아주고전토론대회 차재현·김은비 대상



다산학부대학이 개최한 2017 아주고전토론대회에서 차재현·김은비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 대회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기반을 두고 '소크라테스의 재판, 고발할 것인가 변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예선에서 제출한 토론 개요서의 일본 보고서용 토대로 본선 진출자 7명이 선발됐고 본선은 대면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상 수상은 차재현(사학 4), 김은비(영외 4) 학생으로 구성된 '세컨드'팀이 카메이 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제1의 박동하(영외 2), 신현우(사학 2)가 차지했다. 다산학부대학에서는 고전 읽기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고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 고전강의를 듣는 EBL(Etrow Bag Lectures), 아주고전토론대회, 아주위대한고전강연대회, 다산서원 등이 마련되어 있다.

## EVENT

##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 시상식 열려



2017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가 5월25일 종합관에서 열렸다. 동아리 부문 대상은 ATOM(아톰), 소학회 부문 대상은 약학과·소학회 ABEL(아벨)가 선정되어 각각 7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콘테스트는 동아리와 소학회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이뤄졌으며 각각 20개씩의 팀을 수상팀으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총 61개의 동아리와 186개의 소학회가 참가했다. 심사를 맡은 대학문화위원회(위원장 조재형 학생처장)는 참가팀들이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활성화 정도, 창의성, 전문성, 진취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동아리 대상팀인 ATOM은 1987년부터 로봇 관련 연구와 실험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소학회 대상팀인 ABEL은 약학과 선후배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들의 커리어 개발에 힘쓰고 있다.

## DONATION

## 유정혜 여사, AFTER YOU 프로그램에 기부



故 이한민 학생의 부인인 유정혜 여사가 아주대 "AFTER YOU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유쾌한 반란 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유정혜 여사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아주대 제3회 학장을 지낸 이한민 박사의 부인이다. 딸인 이선이 교수도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있어 아주대와 인연이 깊다. 유 여사는 "평소 신문을 볼 때 이주대란 이름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고 반갑게 느껴진다"며 "자녀 "AFTER YOU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를 접하고 그 취지에 크게 공감을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 NEWS &gt;&gt;&gt;

## PEOPLE

## 국제대학원, 개도국 에너지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



아주대 국제대학원 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정책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는 에너지 과학정책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인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이다. 아주대는 김형택(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의 주도로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코이카로부터 총 2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2021년까지 5년 동안 연수생 총 60명을 선발, 교육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개발과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수강생들은 17개월의 교육을 마친 뒤 '에너지과학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첫 교육과정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되며 교육생은 개발도상국 에너지 정책분야 근무자들 가운데 선발할 예정이다.

## AWARD &amp; SELECTION

## 김영희 박사·이규미 교수, 한국학교심리학회 우수학술논문상



대학원 교육학과 김영희 박사과 이규미 교수(교육대학원)가 한국학교심리학회 우수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학교심리학회는 지난 5월 13일 2017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김영희 박사의 논문을 포함한 2편의 논문을 우수학술논문상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김영희 박사의 논문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졸업논문에 근거하여 발표된 것으로 <초등학생의 분노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제목이다. 이규미 교수도 지도교수로서 함께 상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 김 박사는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효과를 검증했다.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에게 프로그램을 12회에 걸쳐 적용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조동형생만 참여), 통제집단을 비교했다. 김영희 박사는 "실험집단에서 분노 조절 수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 초등학생과 부모 각각의 분노 표현 양상이 모두 향상되는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며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더 효과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 AWARD &amp; SELECTION

## 전자공학과 대학원생팀, 한국정보과학회 논문대회 우수상



대학원 전자공학과 소속 학생 3명이 한국정보과학회 주최한 학생 논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김석원, 홍성우, 진정환(대학원 전자공학과, 지도교수 김영진) 학생은 한국정보과학회 주최한 <제36회 학생논문경진대회>에서 '계산 속도와 왜곡 강인성을 동시에 고려한 이미지 품질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이번에 수상한 학생들은 전자공학과 인메이트 컴퓨팅 및 시스템즈 연구실에서 김영진 교수의 지도 아래 인간 시각 최적 만족의 이미지 처리 및 평가, 이미 전력 및 성능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수상자 중 진정환 학생은 지난해에도 한국정보과학회 주최 학생 논문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한국정보과학회는 1973년 설립된 컴퓨터 분야 최대 학회로 4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 EVENT

## '아주 좋은 제안' 시상식



'아주 좋은 제안' 시상식이 지난 3월9일 오전 유곡관 총장실에서 열렸다. 아주 좋은 제안은 행정 업무 개선과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제안에 참여한 직원들이 이날 상을 받았다. 총 39건의 제안이 있었고, 이 중 17건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총 9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재은(국제화사업팀) ▲김지현(재무회계팀) ▲안영식(총무팀) ▲강민철(예산팀) ▲김기현(학술정보팀) ▲이미영(공대교양팀) ▲곽영호(구내팀) ▲이관용(기획팀) ▲서혜진(아주상담지원센터)

## AWARD &amp; SELECTION

## 최서연 학생팀, 산림청 공모전 최우수상



아주대 미디어학과 최서연 학생이 산림청 주최 <2017 산림공공매터 포레스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서연 학생(미디어 14)과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부 15학번 유시량, 강남의 학생은 팀을 이뤄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 응모했다. 이 팀은 '포레스트홈(ForestHome)'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해 최고상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레스트홈은 국립공원 수목장림과 가정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의미로, 국립공원 수목장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관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어플을 통해 수목장림 이용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에 실시간 수목관리 정보가 제공된다. 최서연 학생은 "절차 수목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편리한 수목장 서비스 어플을 개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 DONATION

## 공공정책대학원 한마음장학회 4,600만원 기부



공공정책대학원 한마음장학회와 유쾌한 반란 기금으로 총 46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AFTER YOU 프로그램"과 아주희망SOS 장학금으로 각각 4000만원, 600만원씩 사용될 예정이다. 감사제 전달식에는 한마음장학회 석회현 회장을 비롯해 공공정책대학원 신화철 석사19대 원우회장, 차병수 석사20대 원우회장, 양철민 석사21대 원우회장, 진상준 부동산회고2기 원우회장, 유동진 부동산회고 24기 부회장, 최홍준 사회복지 전공 재학생이 참석했다. 한마음장학회는 공공정책대학원 동문들과 교직원을 주축으로 지난 2010년 출범해 가장 형편이 어려운 아주대 학부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다.

## EVENT

## 한화시스템과 ICT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



아주대가 한화시스템과 역량 정보통신 전문기술(ICT)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25일 유곡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경희 부총장과 최진혁 한화시스템 연구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은 매년 한화시스템 관료연구소에서 행정관리, 시스템분석, 소프트웨어(SW) 개발 등의 방위산업 연구개발(R&D) 분야 실습과 현장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올해에는 3학년 학생 10명이 7월 첫 주부터 4주간 현장 실습에 참여한다. 한화시스템은 종합 방산안전기업으로 무기체계의 두뇌와 신경계에 해당하는 레이다와 전자광학장비, 전송통신시스템, 전투지원체계, 사격통제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

## AWARD &amp; SELECTION

## 서형탁 교수 지도 허재우 학생, 세계 최대 규모 학생 과학경진대회 수상



서형탁 교수(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가 지도를 맡아 아주대에서 연구 인턴으로 참여한 온 허재우(서울국제학교 11학년 재학) 학생이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에서 수상했다. 매년 5월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생 과학경진대회 ISEF에는 전세계 1500여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학비 지원, 인턴 활동, 과학 탐사 등 다양한 형태의 부상이 주어지며 총 상금 규모가 400만달러에 달한다. 전세계 78개국에서 선발된 1415명, 178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허재우 학생은 재료 과학부문에 4위에 올랐다. 한국 참가자 가운데는 허재우 학생과 대구17과 학교 학생팀(물리 및 천문 부문 3위) 2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허재우 학생은 지난 1년간 서형탁 교수 연구실에서 2차원 구조 템플트 신화물 나노시트를 이용한 수소 다공도드 센서 연구에 참여해왔다. 서형탁 교수는 "해외 대학에서는 지역의 우수 고등학생들을 연구 인턴으로 참여시켜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도 활동이 활발하다"며 "이를 통해 뛰어난 인재들 대학에 영입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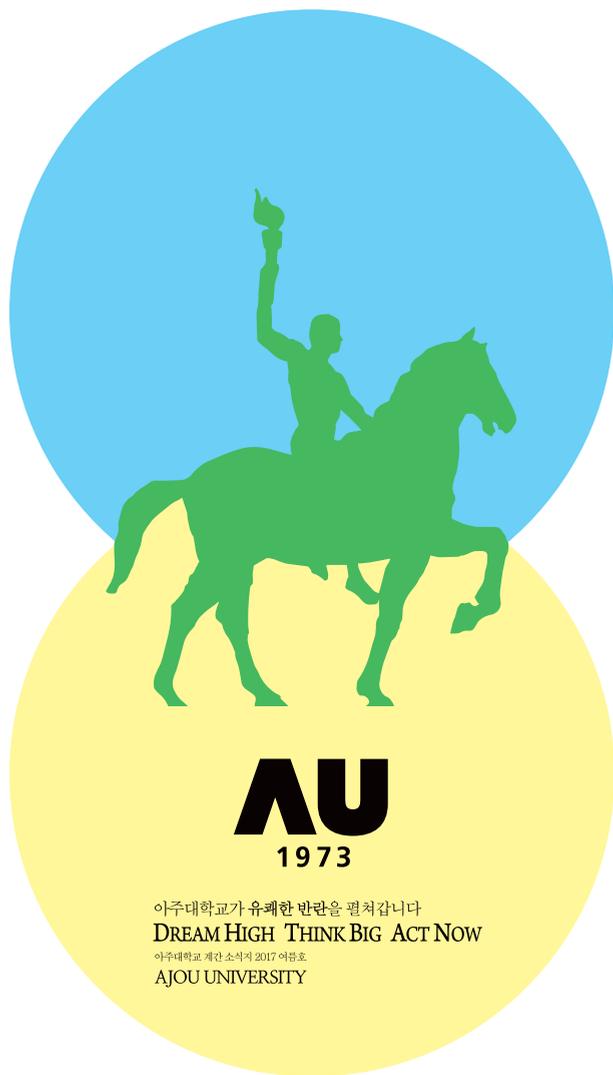
## EVENT

## 약학대학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MOU체결



약학대학이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와 지역사회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앞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 학술 정보 교류 ▲약학대학 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동아리 개설 및 활동 지원 ▲경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 캠페인 및 예방교육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지역사회 연례사업 추진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29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이항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병진 약학대학 학장, 김소희 약학대학 학과장, 박기태 약학대학 교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U**  
1973

아주대학교가 유쾌한 반란을 펼쳐갑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학교 개간 소식이 2017 여름호  
AJOU UNIVERSITY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17 06 07 08 Vol. 20

# AJOUINSIGHT.

<아주인사이트> 2017(4350) 여름호 전 아주대학교사람들과 함께 통권20호.

